지배구조원도 삼성합병 반대

metro®

메트로 2015년 7월 9일 목요일 제3254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8일>

코스피 2016.21 (-24.08)

코스닥 726.22 (-3.42)

금리(국고채 3년) 1.81 (-0.02)

환율(원·달러) 1,136.70 (+3.20)

결국 강제 침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던 중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법도 동반 침몰"

'사퇴 파동' 시발점된 '세월호법 시행령' 해법 난망
공무원 강제 파견 등으로 특조위 구성도 지지부진

"유승민은 최후의 보루는 지키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유승민도 세월호법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8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 직후 익명을 요구한 세월호 유가족은 메트로신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은 유 원내대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국회가 자신들의 생각을 모았던 것인데 그것마저도 침몰했다"며 "여당 국회의원들은 마치 세월호 선장처럼 유 원내대표 하나만을 수장시키고 모두 탈출했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모법인 세월호법을 침해하는 세월호법시행령이 발단이 됐다. 야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에 양보하는 대가로 급조해 통과를 요구한 법안이다. 유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제1과제인 연금개혁을 위해 이를 받아들였지만 결국 여기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지난 2월 2일 선출됐으니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셈이다.

이날 유 원내대표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등 자신의 꿈이자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진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가 지키지 못한 약속에는 세월호와 관련된 약속도 있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2월 17일 취임 후 첫 외부행보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았다. 그 자리에서 유 원내대표는 단원고 실종자인 딸을 찾아달라는 고 허다윤 양의 어머니에게 "잘 알겠다"고 약속하며 눈물을 훔쳤다.

이때 유 원내대표는 정부가 결론을 미루던 세월호 인양 문제를 최대한 빨리 매듭짓겠다고 했다. 그의 약속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이뤄졌다.

유 원내대표는 세월호조사위 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진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유가족들이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원망을 쏟아낸 여당 추천 조사위원들에 대해 "정확히 조사를 해보고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세월호 활동가는 이날 "현재 세월호조사위 구성마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여당 조사위원 중에는 유가족들 욕하는 일베 게시물을 퍼날랐던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참사의 죄인들이 지금은 다 준공무원으로 발령난 걸 보면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중 선박안전공단에 최소 30명이 특별채용된 일을 두고 한 말이다. 선박안전공단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주단체인 해운조합이 맡았던 운항관리 업무를 물려받았다.

세월호법시행령은 조사위원회 의사와 관계없이 각 부처 공무원을 조사위원회에 강제로 파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진상규명에 있어 핵심적인 조사1과장에 검찰수사서기관을 임명하도록 못박았다. 국회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적용될 부분이었다.

유 원내대표의 사퇴에 실망감을 드러냈던 유가족은 "세월호 안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있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 사회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모두 드러났다"고 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라는 희생을 치르고 드러난 문제가 바로잡힐 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유 원내대표의 사퇴와 함께 이미 희미해진 세월호법은 아예 침몰해 그 모습을 감추게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유가족은 "국회가 침몰하는 상황을 바라만 볼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온 국민이 여기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윤정원기자 garden@metroseoul.co.kr

社說

'삼성의 이성계'가 필요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중인 삼성그룹에 하루 사이에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엘리엇이 낸 2건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2연승을 거뒀다 싶더니 합병반대를 권고하는 전문가집단의 의견이 잇따라 제시됐다. 합병이 실패할 것이라는 증권사의 냉정한 보고서도 나왔다.

삼성이 가처분 판결에서 승리한 것은 사실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다. 지금까지 삼성이 하는 일에 대한민국 법원이 제동을 걸어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엘리엇 측에서도 이번 가처분 소송에 대해 그저 삼성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수순 쯤으로 여긴 것 같다. 결국 이번 합병 사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결판나게 됐다. 이에 따라 11.21%의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의 향배에 시선이 집중된다.

국민연금의 입장정리를 앞두고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라고 권고했다. 속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국민연금이 이 권고대로 한다면 합병은 실현되기 어렵다. 국민연금이 권고안을 무시하고 찬성한다고 해도 주주총회에서 가결되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갈수록 태산이다. 설령 합병이 어렵사리 성사된다고 해도 상처뿐인 승리가 되기 쉽다. 특히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적으로 돌려 버렸으니, 향후 삼성그룹 전체와 이재용 부회장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삼성은 이제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 합병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이 그토록 크다면 무모하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고려 말기에 우왕과 최영 장군이 요동반도를 공략하려고 할 때 이성계 장군이 회군했듯이 삼성도 그런 용단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이는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이나 '삼성의 이성계'를 필요로 할 것이다. 현명한 지도자는 무모한 승리를 도모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추진하다가도 문제가 드러날 때 즉각 인정하고 방향을 선회한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도 어리석은 일도 아니다.

내리꽂는 中 증시… 경제혼란 신호탄?

중국 증시가 또 다시 폭락했다. 중국 증시는 지난 3주 동안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폭락해 '검은 금요일'이란 말이 생겼다. 중국 증시 폭락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제1의 경계 대상이다. 그리스 위기는 위기도 아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8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219.93포인트(5.90%) 급락한 3507.19로 마감했다. 선전성분지수 역시 334.71포인트(2.94%) 폭락한 11040.89로 마감했다.

중국 당국은 증시 폭락이 계속되자 다양한 대응책을 내놨지만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신용규제 완화, 기업공개(IPO) 속도 조절, 자금 수혈, 선물 거래량 제한,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보유지분 매각 금지 등 연이은 대응에도 역부족이다.

앞서 전날 미국의 CNN머니는 중국 정부의 과감한 증시 부양책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다

막대한 부작용마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증시 버블 붕괴는 흔히 경제적 혼란의 신호가 됐다"며 "2008년(서브프라임 모기지)과 2000년(닷컴 버블 붕괴)의 일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그리스와 푸에르토리코의 부채 위기가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미국의 거물급 투자자는 경계 대상 최상위 국가로 중국을 꼽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

한줄 News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지연과 중국 증시불안 등의 요인으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이하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잔액은 594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8조1000억원 증가했다.

▲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사망자가 8일 만에 2명 발생했고 추가 환자는 사흘째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혁신위'는 8일 계파 정치의 근본적 청산을 위해 현행 사무총장 및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파격적 혁신안을 마련했다.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2017년에는 도제학교를 전체 공업계열 특성화고에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대공원은 30년 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5만㎡ 숲을 도시민의 치유공간으로 13일부터 문을 연다고 8일 소개했다.

▲ 세월호 희생자 중 86명과 생존자 157명 가운데 16명 등 총 102명이 세월호피해구제특별법에 따른 인적 배상금을 신청했다.

▲ 단통법이 적용된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휴대전화 가입자 가운데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의 가입 비중이 월 평균 12.5%로 집계돼 단통법 발효 이전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 통계청 인구추계 결과 한국 인구가 2030년 52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해서 감소해 2060년 440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재발의했다.

▲ 근로복지공단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낸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취업에 필요한 언어와 직무역량을 배우는 'K-Move 스쿨' 연수생 659명을 공개모집한다.

▲ 올 들어 6월까지 국산 20개 차종 33만5040대, 수입 202개 차종 9만172대 등 모두 42만5212대가 안전결함 때문에 리콜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6810대(25.7%) 늘었다

▲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5월 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5월 시중 통화량(M2·광의통화)은 2170조5000억원(평잔·원계열 기준)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9.3% 늘었다.

▲ 새만금청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해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이 수출입실적 1000만 달러(약 113억원)를 달성하면 수출대금 수령이나 수입대금 지급 시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게 했다.

한숨 내쉬는 김무성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권고안'을 추인한 뒤 한숨을 내쉬며 김학용 대표비서실장 등과 함께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의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대통령 한마디에 사퇴 못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이 의총을 통해 자신의 사퇴 권고를 추인하자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1조 1항이야말로 자신이 끝까지 사퇴 압박을 버틴 이유라는 말이었다. 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 직을 물러나기 위해서는 의총의 추인이 필요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물러날 수는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 유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에게 '의총을 열어 제 목을 쳐달라'고 부탁했다는 말도 들린다.

유 원내대표는 "저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혼란으로 큰 실망을 드린 점은 누구보다 저의 책임이 크다.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오늘이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가치에 매달리고 지켜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주간 저의 미련한 고집이 법과 원칙, 정의를 구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며 "거듭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용서와 이해를 구한다"고 했다.

이어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면서 아쉬움이 있다"며 "지난 2월 당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총선 승리를 약속드리고 원내대표가 되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그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월 국회연설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겠다. 제가 꿈꾸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의 길로 가겠다.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아직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더 이상 원내대표가 아니어도 더 절실한 마음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로 계속 가겠다"며 "저와 꿈을 같이 꾸고 뜻을 같이 해주신 국민들, 당원 동지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막장 표절공화국… 정부까지 개인역사자료 표절?

국방부, 41개국→63개국 수정
월드피스 "동의 구하지 않고 활용"

우리 정부가 개인의 연구결과를 도용해 6·25참전국 숫자를 수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표절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정부의 표절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장관 등 고위공무원 인사에서도 표절은 장애요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

8일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사)월드피스자유연합은 영국 기네스북에서 인증을 받은 자체 조사결과를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담당 연구원이 자신이 처음으로 연구한 논문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국방부는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연구논문을 통해 과테말라와 도미니카, 버마와 일본 등 19개국을 물자지원국으로 브라질 등 3개국을 물자지원 의사 표명국으로 추가해 참전국 숫자를 총 63개국으로 확정했다. 이전까지 공식기록은 41개국이었다.

월드피스는 2011년 국방부 6·25사업 태스크포스(TF)팀이 지원국 숫자 확인 과정에서 월드피스가 미국 국립자료보관청, UN본부 등의 객관적 자료를 연구 조사하여 영국 기네스북에서 인증을 받은 내용을 제출받아 검토했다고 밝혔다. 월드피스는 "국방부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동의조차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드피스는 2010년 9월 3일 '6·25전쟁 당시 전 세계의 67개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한 것은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단일연합군으로 지원한 세계기록'으로 영국 기네스북 세계최고 기록 인증서를 획득했다.

국방부는 67개국 중 4개국(포르투갈·스페인·아일랜드·이라크)을 제외했다. 대신 지원의지를 표명했으나 불발된 3개국(브라질·니카라과·볼리비아)을 포함시켰다. 1950년 10월 27일 서울 동대문 운동장에서 진행된 서울수복 축하 국가 공식행사 사진에는 포르투갈 국기가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 의원은 "금년은 6·25전쟁 정전협정 62주년을 맞이한 해로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규명해야할 시점"이라며 "지원국 숫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범국가적 차원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발굴한 역사적 기록을 칭찬해주지는 못할망정 개인의 공을 빼앗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정원기자 garden@

정부가 입법 좌지우지… 국회법 논란 무색

국회 지배하는 곳은 정부… 국회의원 왜 뽑나 비판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박수현 대변인이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인 일명 '박근혜법'을 제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1998년과 1999년 당시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청을 행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며 이를 '박근혜법'으로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법 개정안이 내년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되지만 '시한폭탄을 땅에 묻어버린 행위'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 국회가 정부의 행정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평가와는 달리 실제 국회를 지배하는 곳은 정부이기 때문이다. 입법 현장에서는 "정부만 있으면 되지 국회의원을 왜 뽑는지 모르겠다"는 신랄한 비판까지 나온다. 국회와 정부 간 권한 문제는 삼권분립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른 시일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법안은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통과되고, 예산안은 정부에서 편성해오면 도장만 찍어주고, 정부 통제를 위한 국정감사는 감사기간 잠시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일 뿐 시정조치들이 어떻게 됐는지 나몰라라 누구도 챙기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 문제와 직결된 입법마저도 사실상 정부가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실장은 "각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차관·국장·실장 등 정부 관계자가 항상 배석을 한다. 상임위 전문위원이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라 정부가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법안소위는 입법의 1차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문이다.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걸러진다.

그는 특히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이 정부에 질문을 하면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다"며 "의원들은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거짓말인 줄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정부에서는 한미FTA에 저작권이 비친고죄로 하게 돼있어 비친고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한글 전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며 "한글본이 공동정본이므로 영어본을 해석해야할 이유가 없지만 정부는 영어본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이다. 의원입법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는 있지만 정부 의견과 다르면 통과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질적으로도 중요한 입법은 정부입법이 대부분이다.

제19대국회 시작 이래 8일 현재까지 의원이 발의한 의안은 1만6021건이다. 정부제출은 918건이다. 의원입법은 지난 18대 1만2220건, 17대 6387건, 16대 1912건 등 지속해서 큰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의원들은 입법실적을 높이기 위해 조항 1~2개만 수정하거나 쪼개기 입법을 남발한다. 의원들의 입법활동 평가를 질이 아닌 양으로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원입법 중에는 의원의 명의만을 빌린 이른바 '청부입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요법안 대부분은 정부가 국회의원한테 입법안을 거의 다 만들어 넘기고 발의자로 이름만 빌린다. 사실상 정부가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청부입법이 성행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서로에게 '윈윈'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입법안을 낼 때는 국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코스를 거쳐야 한다. 정부입법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는 '입안 → 관계부처 협의 → 당정협의 →입법예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국회제출' 등 총 10여 단계다. 반면 의원입법은 '법률안 작성 → 발의 의원 10명 이상 사인 → 국회 상임위 제출' 3단계에 그친다.

정부로서는 발의 의원만 잘 설득하면 법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으니 마다할 일이 없다.

전문가들은 의원들의 중대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특정 사안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회 입장에서는 당장 모법을 침해하는 시행령 조차 수정하지 못하는 현실을 답답해 한다.

/윤정원기자 garden@metroseoul.co.kr

종전70주년 '사죄' 일본 민중담화 발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 발표에 앞서 일본 시민단체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를 담은 이른바 '민중담화'를 발표했다.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언론인 무노 다케지씨(100) 등이 참가한 시민단체 '전후 70년 민중 담화 모임'은 전날 도쿄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종합한 '민중담화'를 발표했다.

모임은 담화를 통해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명기했다.

한일 간 역사전쟁은 소강 상태지만 중일 양국 간 역사전쟁은 한창 본격국면에 접어들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종전70주년 담화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열린 중국 종전 70주년 기념식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할 일은 피해자에 대한 성실한 사죄"

이 모임은 담화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는 국가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침략에 대한 깊은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성실한 사죄이다. 역대 내각의 평화를 향한 지침을 한 걸음이라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민중이었지만 정치의 폭주를 허용하고 파시즘을 지탱해 온 것도 우리 민중이었다"고 했다.

이 모임은 "우리들의 평화를 향한 마음을 국내외에 발신한다"며 "전후70년 총리 담화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담긴 발신이야말로 현대 사회에 어울린다"고 했다. 이 모임은 같은 날 일본 정부와 한중 양국 대사관에 담화를 제출했다.

한편 건강상의 문제로 회견에 참가하지 못한 무노씨는 전화를 통해 교도통신에 "(집단자위권을 담은 안전보장 관련법은) 군국 제체로 돌아가려는 계략"이라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한 운동을 통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지 지금이 승부처"라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치프라스 "채권단 요구에 부응 확신"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그리스 채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채권단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8일 브뤼셀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치프라스 총리는 이날 유럽의회 연설에서 "앞으로 2~3일 내에 우리는 그리스와 유로존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유로존 정상들은 12일을 시한으로 정해 그리스에 채권단의 요구에 부응하는 협상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치프라스 총리는 이날 모든 당사자들이 유럽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리스 위기로 인한 경제적 후폭풍은 안정 추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통합 이념이 퇴색되는 일을 경계하고 있다.

그리스는 1981년 당시 유럽공동체(EC)에 가입했다. 당시 발레리 지스카르데스탱 프랑스 대통령은 그리스의 가입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서양 철학과 민주주의의 발상지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리스의 EC 가입은 2001년 유로존 가입으로 이어졌다. 유로존은 유럽 통합의 상징이다.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이탈)가 유럽 통합의 실패를 선언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배경이다. /송병형기자 bhsong@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운데)가 7일(현지시간) 그리스 구제금융 문제를 다루기 위해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긴급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피의자로 소환

조세포탈·횡령·개인회생 사기 혐의 조사

조세포탈과 횡령, 개인회생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8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탈세와 횡령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2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박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차명재산 보유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한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박 회장은 신원그룹 지주회사 격인 '신원'의 경영권을 되찾고자 가족과 지인 등 명의로 주식을 매입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이는 박 회장의 부인 송모씨가 신원 1대 주주이자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최대 주주(26.6%)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박 회장의 세 아들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1%씩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주식을 매입해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박 회장을 세금탈루 혐의로 고발하고 송씨 등에게서 190억여원을 추징한 바 있다.

탈세와 횡령·개인회생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박 회장은 100억원 가량 회삿돈을 횡령하고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주식 매입 과정과 채무 탕감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정관계나 금융계에 금품 로비를 했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추가 소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박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홍원기자 hong@metroseoul.co.kr

"자녀는 기쁨이지만 경제적 부담"

보사연 '자녀가치' 8개국 비교 한국인 부정적가치 높아

대부분의 한국인이 자녀로 인해 심리적인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끼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과 양육을 꺼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적 이유로 자녀를 가짐으로써 얻는 기쁨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출산율을 높이는 범정부적인 저출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8일 보건복지이슈앤포커스를 통해 한국인이 생각하는 '자녀 가치(Value of Children)'를 주요 8개국과 비교한 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 미국, 스웨덴, 중국, 영국, 일본, 독일, 대만, 프랑스와 한국의 1만8063명이 참가한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조사 결과를 분석해 각국 국민이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긍정적 항목과 부정적 항목을 나눠 살펴봤다. 조사는 5점 척도로 진행됐다.

긍정적 항목으로는 ▲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다 ▲ 자녀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다 ▲ 성인 자녀는 노부모에 도움이 된다 등 3가지다.

부정적 항목으로는 ▲ 자녀는 부모의 자유를 제한한다 ▲ 자녀는 재정적 부담을 준다 ▲ 자녀는 부모의 경제활동 기회를 제한한다 등 3가지다.

조사결과 한국인은 긍정적인 항목과 부정적인 항목 모두에서 타국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얻었다.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다' 항목에서는 평균 (4.34점)보다는 낮지만, 꽤 높은 편인 4.26점을 얻었다. '자녀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다'는 항목에서도 스웨덴(3.29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3.17점을 받았다.

부정적 항목인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다' 항목에서는 3.26점으로 프랑스(3.84점), 대만(3.38점)에 이어 세 번째로 점수가 높았다.

'자녀는 부모의 경제활동 기회를 제한한다' 항목에서는 3.25점으로 독일(3.29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한한다' 항목에서도 가장 높은 2.84점을 얻었다.

김미숙 보사연 연구위원은 "한국인은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도 높고 부정적인 가치도 높은 양면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며 "자녀가 기쁨이기는 하지만 자녀양육이 경제적으로 부담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 "출산율을 높이려면 자녀양육에 뒤따르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활동 제한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대법원 재판 진행상황, 집에서 본다

9월부터 사건검색 서비스

9월부터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도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 시스템을 통해 진행상황을 알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상고심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9월부터 전산을 통해 상고심 심리단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법정에서 실제 심리가 진행되는 1·2심 사건은 전산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법률심인 대법원 사건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어서 세부적인 진행상황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때문에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으로서는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알 수 없어 불만이 컸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건검색 시스템에 심리진행상황 항목을 신설해 재판부 배당과 주심 대법관 지정, 상고이유서나 답변서 송달 같은 단계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또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났는지, 쟁점에 대해 재판부 논의가 진행 중인지 등 검토상황에 관한 정보는 물론 접수된 지 1년이 지난 사건은 장기간 검토되는 사유도 안내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여러 하급심의 기준이 되는 사건이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거나 '외국의 입법례나 판례가 있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다'는 내용 등이 안내되는 식이다.

대법원은 그간 제공되지 않았던 상고심 심리단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당사자와 대리인의 절차적 만족은 물론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

창녕 부곡하와이, 11일 물 놀이장 개장 경남 창녕군 부곡하와이가 '안전하고도 즐거운 여름, 새로운 여름 색이 있는 여름'이라는 주제의 '패밀리 야외워터파크'에 이어 오는 11일 그랜드를 오픈한다고 8일 밝혔다. /뉴시스

'배임 혐의'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 등 전원 무혐의

검찰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고발된 허경수(58) 코스모그룹 회장과 코스모화학 경영진을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신호철)는 "허 회장 등의 행위가 합리적인 경영상의 이유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지난달 29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허경수 회장과 코스모화학 이사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코스모화학이 연대보증·담보제공·자금대여 등 방법으로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들 계열사는 대부분 지배주주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불량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은 결국 지배주주 일가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2012년 2월에도 같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연미란기자 actor@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롯데호텔 노동자 부당해고 용인 "항소"

시민단체들, 행정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판사 개인 상식 말고 법대로 판단해 달라"

"사회적 역할을 하지 않은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계속 싸움을 이어가겠다. 그리고 롯데호텔이 20대 청년 노동자에게 가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겠다."

롯데호텔에서 84일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무하며 84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해고된 김영(24)씨. 김씨는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 등과 함께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한 서울행정법원을 강력히 규탄했다.

김씨는 "이번 판결에 항소해 법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이 대기업 롯데호텔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방기했다. 형식상의 근로계약 체결을 무분별하게 악용할 여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판결이다. 호텔 업계를 비롯한 대기업에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형식적인 '하루짜리 일용직 근로계약'을 허용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권두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원장은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만 해고를 할 수 있다. 기존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이 이를 무시한 판단을 내놨다"며 "판사 개인이 가진 잘못된 상식, 고집을 투영해서 판단하지 말고 법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장은 특히 "호텔 주방 설거지 업무도 상시지속업무에 해당된다"면서 "법원이 상시지속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일회용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2012년 12월 10일부터 2014년 3월 29일까지 84일동안 롯데호텔에서 주방 보조와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일하며 84차례 계약을 갱신하다 남자 아르바이트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롯데호텔로부터 해고당했다. 이에 김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한 차례 기각된 후 재심을 신청해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롯데호텔은 "김씨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일이고, 1일 단위로 근무가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고, 행정법원은 지난달 18일 롯데호텔의 손을 들어줬다.

롯데호텔에서 84일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무하며 84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해고된 김영(24) 씨가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 등과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용직 청년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한 행정법원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번 판결에 항소해 법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김씨의 업무는 특별한 기능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보조업무에 불과해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아르바이트 직원과 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춰보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나는 누구?… 정체성 혼란 대학생들 커뮤니티 호소 '봇물'

전문가 "대학 입학시에 대학 생활 적응 관련 과목 개설해야"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서 어느 날 갑자기 '흉측한 해충'으로 변신한 주인공 그레고르. 앞서 그는 직장은 물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한다. 이 충격으로 아버지가 던진 사과를 맞고 생긴 상처가 덧나 비참한 죽음을 맞는다. 벌레로 변해버린 그는 가족들에겐 공포의 대상이다.

소설은 철저히 타인의 눈에 의해 나 자신의 존재 가치가 결정돼 버리는 현대사회 풍조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많은 학생들이 타인에게 그저 '괜찮은 나'로 비춰지길 희망하며 살아간다. 본격적으로 자아를 표출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대학생들은 더욱 그러하다.

'진짜 자신의 모습'과 '타인을 위해 꾸며진 자신' 사이의 괴리감을 견디지 못해 극도의 외로움을 호소하는 대학 새내기들이 적지 않다.

대학생활의 고민과 이야기들을 나누기 위해 탄생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커뮤니티인 '대나무숲'은 심리적 갈등과 외로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삶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 학생은 지난 6일 서울 K대 대나무숲에 "이 학교를 졸업하면 뭘 하고 싶다는 꿈이 없을 것 같다"며 "그냥 주변사람에게 말하는 꿈들은 다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지어낸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에서 가면을 벗고 싶은데 왠지 우리 학교에선 내 원래모습과 어울려줄 친구는 없을 것 같다"며 "이 학교를 다닐만한 인재일순 있지만 학교에 어울릴만한 성격의 사람은 아닌가보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글 말미에 그는 "혹시 나와 같은 사람이 학교에 있으면 친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글엔 "저랑 똑같네요", "공감", "친구해요", "내 얘긴가" 등 공감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글을 올린 학생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대학의 대나무숲도 마찬가지다.

지난 6일 서울 Y대 대나무숲에는 "행복하다가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혼자 우울해지고 운다. 부모님도, 나를 무척 사랑해주는 남자친구도 이런건 모른다"는 글이 올라왔다.

원성두 계요정신건강병원 임상심리전문가는 이 같은 현상의 근본 원인에 대해 "고등학교 때까지의 구조화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학에서 개인이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겪는 정체성혼란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다수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까지 오긴 하지만 대학이 목표였지 대학에 들어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목표들은 사실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자기개념과 자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그는 "대학에서 적응곤란을 겪고 우울증에 노출이 된 후 상담센터를 찾는 학생들에게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대학 입학 시에 대학생활 적응이나 정신건강 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처벌"

강신명 청장 "악성사기 근절"

강신명(사진) 경찰청장은 조직화·지능화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범죄단체로 처벌하는 등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8일 강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국민을 괴롭히고 피해를 양산하는 악성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 청장은 "범죄의 숙주 역할을 하는 명의도용 물건(대포 물건)에 대해서도 단속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복·난폭운전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청장은 "보복·난폭 운전은 강력범죄라는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 방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의 검거율이 작년 대비 4.2% 증가하고, 조직폭력배 검거 인원도 75% 증가했다.

절도는 발생건수가 1년 전과 비교해 2.2% 줄었다. 그러나 검거율은 7.1% 증가했다.

상반기 집회시위는 작년과 비교해 15.7% 증가했고, 불법 폭력시위는 35.1% 급감했다.

경찰은 오는 8월부터 순찰업무를 전담하는 '다목적 기동순찰대'를 전국 20개 경찰서에 추가로 운영하고, 태블릿형 단말기 2500여대를 순찰차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홍원기자

'땅콩 리턴' 피해자 박창진, 산재 인정

'땅콩 리턴'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회의에서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산재를 신청했다.

산재가 승인됨에 따라 박 사무장은 치료비와 산재 기간 평균임금 약 70%의 휴업급여, 재발 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해 '땅콩 리턴' 사건 발생 후 박 사무장은 병가를 냈다. 이어 지난 4월 11일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급휴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무장은 미국 뉴욕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단의 산재 승인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홍원기자

갤럭시S6 부진… 삼성 브랜드가치에 악영향

애플 등 경쟁사에 밀려 판매 전망치 하향 조정

갤럭시 파생상품도 봇물 '프리미엄' 이미지 희석

삼성 2분기 실적 기대밑 브랜드가치도 45위로 뚝

갤럭시S6의 판매 저조 후폭풍이 삼성전자 전체로 번지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지배력 약화는 물론 삼성의 브랜드 가치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전자업계와 증권업계는 삼성전자의 전략형 스마트폰 갤럭시S6의 판매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갤럭시S6는 출시 초기만 해도 갤럭시S 시리즈 최대 판매작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올해 판매량이 4000만대 중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초 갤럭시S6는 애플의 아이폰6의 대항마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아이폰을 앞세운 애플이 글로벌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영향력을 공고히 한 반면 갤럭시S6는 아이폰6에 사실상 완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 이상 갤럭시S 시리즈를 아이폰의 라이벌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의 전략형 스마트폰 갤럭시S6. /삼성전자 제공

갤럭시S6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점차 지배력이 약해지고 있다. 확실한 상품가치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중국의 샤오미 등 가격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에 밀려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 여기에 갤럭시 시리즈 파생 제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면서 '프리미엄' 이미지도 희석되는 상황이다.

갤럭시S6가 주춤하면서 삼성전자 올해 2분기 실적도 기대를 밑돌았다.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IM(IT모바일) 부문의 2분기 영업이익은 3조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분기(2조7400억원)와 비교해도 차이가 크지 않다. 갤럭시S6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제품의 관심도가 급감하면서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갤럭시 S6는 구글 검색 빈도가 이전 제품들 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판매망의 재고 부담, 소비자들의 관심도를 고려하면 3·4분기에도 판매확대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갤럭시 시리즈가 잇달아 고전하면서 삼성의 브랜드 가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가치 평가 업체 밀워드 브라운에 따르면 올해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45위다. 전년보다 16위가 떨어진 순위다. 삼성전자는 2012년 55위, 2013년 30위, 2014년 29위를 기록했다.

BRANDZ™ TOP 100 MOST VALUABLE GLOBAL BRANDS 2015

	Brand	Category	Brand Value 2015 $M	Brand Contribution	Brand Value % change 2015 vs 2014	Rank change
1		Technology	246,992	4	67%	1
2	Google	Technology	173,652	4	9%	-1
3	Microsoft	Technology	115,500	4	28%	1
4	IBM	Technology	93,987	4	-13%	-1
5	VISA	Payments	91,962	4	16%	2
6	at&t	Telecom Providers	89,492	3	15%	2
7	verizon	Telecom Providers	86,009	3	36%	4
8	Coca-Cola	Soft Drinks	83,841	5	4%	-2
9	McDonald's	Fast Food	81,162	4	-5%	-4
10	Marlboro	Tobacco	80,352	3	19%	-1
11	Tencent 腾讯	Technology	76,572	5	43%	3
12	facebook	Technology	71,121	4	99%	9
13	Alibaba Group	Retail	66,375	2	NEW ENTRY	
14	amazon.com	Retail	62,292	4	-3%	-4
15	中国移动 China Mobile	Telecom Providers	59,895	4	20%	0
16		Regional Banks	59,310	3	9%	-3
17		Conglomerate	59,272	2	5%	-5
18	ups	Logistics	51,798	5	9%	-2
19	Disney	Entertainment	42,962	5	24%	4
20		Payments	40,188	4	2%	-2
21	Baidu 百度	Technology	40,041	5	35%	4
22	ICBC 中国工商银行	Regional Banks	38,808	2	-8%	-5
23	vodafone	Telecom Providers	38,461	3	6%	-3
24	SAP	Technology	38,225	3	5%	-5
25		Payments	38,093	4	11%	-1

Source: Millward Brown (including data from BrandZ, Kantar Retail and Bloomberg)
Brand Contribution measures the influence of brand alone on financial value, on a scale of 1 to 5, 5 highest
Coca-Cola includes Light, Diets and Zero

BRANDZ™ TOP 100 MOST VALUABLE GLOBAL BRANDS 2015

	Brand	Category	Brand Value 2015 $M	Brand Contribution	Brand Value % change 2015 vs 2014	Rank change
26	Walmart	Retail	35,245	2	0%	-4
27	T··	Telecom Providers	33,834	3	18%	0
28		Apparel	29,717	4	21%	6
29	Starbucks	Fast Food	29,313	4	14%	2
30	TOYOTA	Cars	28,913	4	-2%	-4
31		Retail	27,705	2	25%	9
32	LV	Luxury	27,445	5	6%	-2
33		Beer	26,657	4	9%	2
34		Cars	26,349	4	2%	-2
35	HSBC	Global Banks	24,029	3	-11%	-7
36		Regional Banks	23,989	4	6%	2
37		Baby Care	23,757	5	5%	2
38	L'ORÉAL PARIS	Personal Care	23,376	4	0%	-2
39	hp	Technology	23,039	3	18%	10
40	SUBWAY	Fast Food	22,561	4	7%	3
41	China Construction Bank	Regional Banks	22,065	2	-12%	-8
42	ZARA	Apparel	22,036	3	-5%	-5
43	Mercedes-Benz	Cars	21,786	4	1%	-1
44	ORACLE	Technology	21,680	2	4%	1
45	SAMSUNG	Technology	21,602	4	-17%	-16
46	movistar	Telecom Providers	21,215	3	2%	0
47	TD	Regional Banks	20,638	4	3%	0
48	CommonwealthBank	Regional Banks	20,599	3	-2%	-4
49	ExxonMobil	Oil & Gas	20,412	1	3%	-1
50	中国农业银行	Regional Banks	20,189	1	11%	4

Source: Millward Brown (including data from BrandZ, Kantar Retail and Bloomberg)
Brand Contribution measures the influence of brand alone on financial value, on a scale of 1 to 5, 5 highest
Budweiser includes Bud Light

밀워드 브라운 2015 '톱100' 브랜드 순위. /밀워드 브라운 자료

밀워드 브라운은 광고 단가 기준이 되는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업체다. 이 조사가 실제 광고단가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삼성의 브랜드 가치 등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 시장이 상향평준화 됐고, 경쟁업체들이 기술격차를 빠르게 좁히면서 삼성전자만의 제품 경쟁력을 찾기 힘들어졌다"며 "지금과 같은 개발·판매 전략을 고수하면 앞으로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하이트진로 '일감 몰아주기' 현장조사

공정위, 계열사와 내부거래 비중 높아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7일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와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의 서초동 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를 담는 통인 케그와 냉각기 같은 맥주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비상장사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과 차남인 박태영 전무 등 총수일가의 서영이앤티 지분이 99.91%에 달하는 상황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2년 매출 1118억원 중 1086억원이 하이트진로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이와 관련,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는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단순 실태점검 차원"이며 "자료 협조를 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총수 일가에 부당이득을 안겨주는 내부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한 새 공정거래법을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법의 규제 조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적용됐다. 지난달에도 한진그룹과 현대그룹 총수 일가가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분식회계 혐의' 대우건설 징계 결론 못 내려

금감원 수사 장기화 우려 무리한 징계 추진 비판도

금융감독원이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징계를 확정하려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지난 2013년 말부터 수사를 진행한 금융당국이 해당업체에 대한 무리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감리위)는 지난 7일 대우건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건(분식회계 혐의)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징계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날 감리위는 대우건설과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의 직접 소명을 들었다. 하지만 논의 안건이 방대하고 위원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안건 심의를 다음 감리위로 연기했다.

이번 징계 연기로 업계에서는 수사 장기화와 무리한 표적수사를 우려하고 있다.

이번 징계결정 연기로 감리위 이후 열리는 증선위 최종결론도 이달 내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3년 12월

제보를 통해 분식회계 혐의로 회계 감리 절차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지적한 항목은 대손충당금(장부상 미반영 손실금)이다. 이는 건설사가 주기적으로 역마진이 날 금액을 평가해 그때그때 손실로 처리하는 공사손실충당금을 말한다. 이 충당금은 공사 발주처가 갑자기 부도가 나는 등 앞으로 거액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이 있을 때도 반영된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 12월 대우건설이 과소계상한 대손충당금 규모를 1조5000억원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중징계를 예고한 지난달 19일 이 충당금 규모를 4000억원으로 발표했다. 1년 반 동안 수사를 진행하면서 손실금 규모를 4분의 1로 줄인 것. 또 분식회계 자체가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당국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분식회계란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산해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그간 초기 기획 단계에서 나온 손실 추정치 미반영을 과소계상하지 않았다. 대우건설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것.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가 결정되지 않은 초기 기획 단계의 경우 업계 관례상 충당금을 과도하게 잡을 수는 없는 만큼 대체로 공정률이 70% 되는 시점에 손익을 추정하고 원가를 재조정한다"며 "이 충당금 문제를 지적할 경우 국내 대부분의 건설사가 분식회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날 감리위는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의 소명 발언이 길어지면서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장기적으로 수사한 만큼 월말 감리위에서 (징계 수위가)결론이 나면 징계를 위한 절차에 빠르게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2015 House View

시장을 먼저 읽어라

달러자산에 투자하라.

달러자산에 투자하세요.
해외투자,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안정적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달러자산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합니다. 특히 기술과 혁신의 중심인 미국은 1년이상 장기투자에서 가장 유망합니다.

달러를 이동하세요!

달러도 연 2.0% 수익률 (3개월 예치시, 세전, 2015.04.06기준, 달러가치 하락시 손실 발생 가능)

대신증권 달러RP 특별판매

대상: 개인고객(신규/기존)
한도: 개인별 1만$ ~ 50만$
수익률:연2.0% (기본수익률 연0.9% + 추가수익률 연1.1%)
*3개월 이후, 가입시점의 수시 RP이율 적용

고객 감동센터 1588 – 4488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징, 수수료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님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USD RP 입금액은 달러화 표시 외화증권에 투자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판매회사 지급불능시 증권예탁결제원에 고객분으로 구분예탁된 유가증권(원금 105% 이상)을 보유 및 처분 가능) *USD RP는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SD RP 수익률은 입금 시 당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수익률 변경 이전 매수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까지 매수시 약정한 수익률을 적용) *USD RP에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USD RP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감동센터(1588-4488)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2943호 (2015-04-28 ~ 2016-04-27)

은행권, 고금리 中 채권시장 진출 속도

우리·SC·외환은행 등 CIBM 진입
기업의 위안화 거래 규모 증가 예상

국내은행들이 중국의 채권시장에 잇달아 진입하고 나섰다.

중국채권의 직접거래를 통해 안전한 투자처를 확보하는 동시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활성화에 발맞춰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중국채권을 활용해 위안화 관련 직·간접투자나 파생상품 개발 등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과 상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우리·SC銀, 투자자격 획득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6일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중국 은행간 채권시장(CIBM)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승인받았다.

중국은행간 채권시장(CIBM)은 중국의 국공채나 금융채, 회사채 등 다양한 채권이 거래되는 중국내 은행간 장외시장으로 중국 전체 채권거래액의 90%이상을 차지한다.

채권 시장에 진입 하기 위해선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그간 특정펀드나 위안화 무역결제에 실적이 많은 은행에 대해서만 CIBM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우리은행은 국내 은행 중 최대 한도인 20억 위안(원화 약 3600억원) 규모로 투자자격을 획득했다.

이번 투자자격 획득으로 우리은행은 저수익 구조인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새로운 투자처로 중국채권 시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지난 2일 CIBM을 통해 5000만 위안(약 91억 원 상당)의 위안화 채권 매수거래를 실행했다.

이에 앞서 SC은행은 지난 3월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국내 금융기관 중 최대규모인 59억 위안(약 1조 700억원 상당)의 CIBM 쿼터를 부여받았다.

◆ 고금리-안전성·자금조달 수단 확보 '매력'

박형근 SC은행 금융시장본부 부행장은 "한-중 무역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은행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조성자(market maker)로서 다양한 자금조달과 운영수단을 가짐에 따라 거래고객들에게 보다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앞으로도 위안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말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CIBM 투자를 허용받아 위안화 무역결제 관련 자금을 중국 본토 채권시장에서 운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 수출입 업체가 외환은행을 통해 대중국 무역 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위안화 자금을 예치할 경우 중국 본토의 고금리 채권 시장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위안화 거래 규모가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위안화 서비스 플랫폼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강창훈 외환은행 자금시장본부 본부장은 "자본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 위안화 무역 결제 기업 입장에선 보유한 위안화 자금 운용에 제약이 매우 컸다"면서 "현재 중국 내 채권 시장의 금융 환경에 비춰 높은 금리의 위안화 예금 상품이 가능한 만큼, 기업 입장에서도 위안화 무역 결제 참여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6월 가계대출 8조1000억 증가

저금리·주택거래 활성화 영향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8조원 넘게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잔액은 59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보다 8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여기에는 집을 사기 위해 빌린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6조8000억원 늘어난 439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낮은 금리 수준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실제 지난달 서울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1300호로 지난 2006~2014년 6월 평균 거래량인 5800호의 두 배에 달한다.

반면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 기타대출은 1조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편 6월 은행 기업대출은 2조3000억원 늘며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은행 수신잔액은 한달새 19조9000억원 증가한 1323조7000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시입출식예금은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18조1000억원 확대됐다.

자산운용사의 수신 잔액은 428조1000억원으로 전달보다 6조3000억원 늘었다.

이밖에 6월중 M2증가율(평잔기준)은 은행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증가하며 전월과 비슷한 9%대 초반으로 추정됐다. /백아란기자

우리은행, 베트남서 '글로벌 자원봉사활동' 우리은행은 지난 6일 '투게더 우리(Together Woori) 글로벌봉사단' 발대식을 열고 베트남 자원봉사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전국 영업점에서 선발한 우수직원 30명으로 구성된 '투게더 우리(Together Woori) 글로벌봉사단'은 11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우리은행 제공

하나은행,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 출시

'하나 이지세이브론'

하나은행은 8일 서민을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인 '하나 이지세이브론'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은 서민이라도 신용등급에 따라 연 6~10%대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 대환자금 또는 긴급 생활자금을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만기전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다. 단 3개월 이상 급여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다른 금융기관에 신용대출이 있더라도 연소득의 30% 범위내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은 스마트폰뱅킹 앱인 '하나N 뱅크' 또는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백아란기자

신한카드, 지식공유 토크 콘서트 개최

GREAT 토크 인터러뱅

신한카드는 문화마케팅 브랜드인 'GREAT 시리즈'의 일환으로 '신한카드 GREAT 토크 인터러뱅'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일상의 질문과 고민들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관객들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며 색다른 깨달음을 선물하는 지식공유 토크 프로그램이다.

오는 31일 저녁 7시 삼성동 올림푸스홀에서 첫 선을 보이는 신한카드 인터러뱅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당신, 혼자의 힘을 믿나요?'다.

강연자로는 1인 영화 제작사인 '구혜선 필름'을 설립한 구혜선 감독과 MBC '나 혼자 산다'를 기획하며 1인 가구의 재미와 애환을 그려낸 이지선 PD, 아시아 최초의 1인 미디어 매니지먼트 '트레져헌터'의 송재룡 대표가 무대에 나선다.

이들의 토크가 모두 끝난 후에는 '관객 스피커(Speaker)'의 5분 스피치가 이어진다. 관객 스피커는 오는 1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응모를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연사들의 강연 영상은 지식 공유 차원에서 매달 신한카드 페이스북에서 한 편씩 공개된다. 또 2030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트렌드와 이슈를 지속 발굴해 분기마다 새로운 주제와 질문으로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참여는 인터파크티켓에서 누구나 예매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카드 GREAT 토크 인터러뱅은 새로운 인사이트와 창조적 롤모델에 목마른 2030세대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기획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2030세대와 교감하며 함께 느낌표를 찾아가는 주요한 소통창구로 활용, 지속적 브랜드 자산으로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죽어가던 용인 주택시장 부활 '날개짓'

5월 거래량 총 9224건 2년전 보다 85.7% 올라

지하철 등 교통망 확충 제2판교밸리 확정 호재

금융위기 이후 '반값 세븐', '미분양 무덤' 등의 오명을 썼던 용인 주택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거래가 늘면서 한때 절반 가까이 떨어졌던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접어든 것은 물론, 개점휴업 상태였던 분양시장에도 활기가 도는 모습이다.

8일 국토교통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경기도 용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총 9224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7638건)에 비해서는 20.8%, 2013년의 4967건보다는 85.7% 증가한 수치다.

아파트 매매가 역시 2013년 8월 바닥을 찍은 뒤 꾸준한 상승세다. 부동산 114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용인시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는 977만원으로 지난 2013년 8월 저점(3.3㎡당 923만원) 대비 5.85% 올랐다.

오랜 침체를 겪었던 용인지역 주택시장이 이처럼 부활 조짐을 보이는 데는 신분당선을 비롯한 각종 교통망 확충이 크다는 분석이다.

용인은 이미 개통한 분당선과 신분당선 연장선(강남~정자역)에 이어 내년 2월 2단계(정자역~광교) 구간이 뚫리게 된다. 또 분당선 구성역 인근이 삼성역~동탄역 GTX노선 역사로 선정됐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서울 전세난에 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용인으로 많이 넘어갔다"며 "교통호재가 풍부해 앞으로도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외곽이라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근 제2판교테크노밸리 착공 확정에 따른 기대 심리도 작용했다. IT·문화콘텐츠·서비스 분야 1500여 개 기업, 10만여 명이 근무하는 제2판교테크노밸리가 올해 말 삽을 뜨기로 한 것.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용인은 대표적인 베드타운 중 하나였지만 인근에 제2판교테크노밸리가 착공을 확정하면서 자체 배후수요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금융위기 이후 중단됐던 신규 분양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상반기에만 7400여 가구가 공급된 데 이어 하반기에도 7600여 가구가 대기 중이다. 2008년 이후 최대 물량이다.

당장 포스코건설이 기흥역세권지구 3-1블록에서 '기흥역 더샵' 8월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분당선과 에버라인 환승역인 기흥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정자역까지는 10분대, 강남역까지는 3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한화건설과 롯데건설은 9월 용인 수지에서 신규 공급에 나선다. 한화건설은 상현동에서 '용인상현 꿈에그린'을 선보인다. 신분당선 상현역(가칭)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다. 롯데건설은 성복동에 3000여 가구의 '롯데캐슬 성복(가칭)'을 공급한다. 신분당선 성복역(가칭)과 연결된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 의정부역내 홍보관 운영 대림산업은 지난 4일부터 의정부역사에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 분양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하철 역내 홍보관을 마련한 것은 업계 최초다. 이 홍보관에서는 사업지 소개와 분양 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관람객에게는 소정의 사은품도 증정한다.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 의정부역사 홍보관에서 관람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대림산업 제공

지방 아파트값 평당 1000만원 돌파

대구, 3.3㎡당 1038만원 서울 도봉구 보다도 높아

사상 처음으로 지방에서도 3.3㎡당 1000만원을 웃도는 지역이 나왔다. 특히 대구와 부산 등 경상권 소재 지역이 타 지방보다 아파트 가격이 높게 나타났다.

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1038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 도봉구(1013만원)와 금천구(1009만원)보다 높은 수치다.

대구의 경우 지난 2008년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로 한동안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여기에 혁신도시 건설, 대구지하철2호선 연장 등 각종 호재도 이어졌다.

이 때문에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3년과 지난해 각각 10.93%, 11.72% 급등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7.66% 상승했다.

이중 수성구는 명문고교로 꼽히는 경북고와 경신고 등이 있어 '대구의 8학군'으로 불리며 매매가격이 높은 지역이다.

대구 수성구의 호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억8179만원에 달한다. 이는 대구 서구(2억737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높다.

수성구 아파트 전세가격(2억8809만원)도 서구(1억4930만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 이는 서울 소재 자치구인 은평구(2억8668만원), 구로구(2억6507만원), 강북구(2억4824만원), 중랑구(2억4529만원), 금천구(2억2716만원), 노원구(2억1545만원), 도봉구(2억1192만원) 등 7개 지역보다도 높은 가격이다.

부산지역도 3.3㎡당 1000만원을 육박하는 지역이 나타났다. 수영구와 해운대구가 각각 3.3㎡당 968만원과 945만원을 기록한 것. 특히 해운대구 우동 두산위브 대형면적은 3.3㎡당 4000만원을 넘어섰다.

이밖에 대구 중구(852만원), 울산 중구(850만원), 울산 남구(834만원), 부산 동래구(833만원), 경남 창원시(832만원), 부산 금정구(831만원), 부산 연제구(824만원), 부산 남구(804만원) 등도 3.3㎡당 800만원을 넘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대구는 당분간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줄잇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는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 매입에 관심이 있다면 시장 상황을 좀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평택서 '평택 코업스테이 호텔' 분양

경기도 평택 포승지구에서 '평택 코업스테이 호텔'이 선보여 눈길을 끈다.

평택은 100조원 규모의 삼성반도체 착공을 비롯해 진위 LG산업단지 조성(예정), KTX 개통(예정), 미군기지 이전 등 호재가 풍부한 지역이다.

특히 평택항은 중국과의 최단거리 교역항이자 동북아의 허브로 국내 항만 물동량 증가율 1위, 최근 4년간 자동차 수출입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평균 50여만명이 이용 중인 평택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도 매년 증가세다.

그러나 평택에는 10년 이상 된 100실 미만 호텔이 대부분이라 늘어나는 관광객과 외국인 바이어들을 수용할 비즈니스 호텔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평택 코업스테이 호텔'은 104실 규모로 합리적인 분양가에 90%의 객실가동률을 자랑한다. 여기에 평택항과 평택국제여객터미널과 가까워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경쟁력 있는 객실료의 책정으로 장기 체류고객 유치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대출시 10~13%의 수익을 즉시 보장 받을 수 있고, 10년간의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 자금관리는 하나 자산 신탁에서 책임지며 계약금은 10%다. 분양 후 1년간 10번의 호텔 무료 사용권을 증정한다. 바다 조망 객실도 있어 조망권이 보이는 객실은 선착순 분양으로 진행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지하철 2호선 이대역 앞에 있다. 분양문의 02-755-6000

/박선옥기자

GS건설 '테라스 자랑하기' 이벤트

GS건설은 이달 말 테라스하우스인 '광교파크자이 더테라스' 분양을 앞두고 '우리 집 특별한 테라스 자랑하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온라인 카페 레몬테라스와 함께 한다. 테라스하우스 거주자가 자신의 테라스를 예쁘게 꾸미거나 독특하게 활용하는 사진을 찍어 오는 12일까지 올리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15일이고, 당선작에게는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한편 '광교파크자이 더테라스'는 지하 1층, 지상 4층, 전용면적 84~115㎡, 268가구로 이뤄졌다. 기본 4-bay 설계에 최고층은 복층형(다락방)이 적용된다.

/박선옥기자

"비싸도 못 끊겠다"… KT&G 주가 '꿈틀'

| 마켓인사이트 |

담배 수요량 급격히 회복 메르스 탓 홍삼 판매 급증 2분기 실적, 예상치 웃돌 듯

국내 담배업체 'KT&G'가 담배 수요 회복과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면서 주가도 꿈틀거리고 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T&G 주가는 불과 지난달만 해도 담뱃값 인상 여파로 당분간 배당을 늘리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약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담배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됐다는 분석에 서서히 상승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KT&G의 올해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KT&G는 공간필터에 색다른 시원함의 폴라볼 캡슐을 적용한 '레종 아이스팟'을 출시했다. /KT&G 제공

이경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2분기 담배 수출 급증 등으로 시장 컨센서스(추정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연구원은 "KT&G의 2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4.1%, 4.2% 감소할 것"이라면서도 "이는 시장 추정치를 영업이익 기준으로 8.8%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분기 실적 호전은 담배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46.2%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담배 수출은 1분기에 매출채권 회수와 미국 향만노동자 파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8.9% 감소했다. 그러나 2분기에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면서 호조세를 보였다.

이 연구원은 "KT&G의 점유율도 1분기 56.6%에서 2분기에 58.3%로 개선될 것"이라며 "경쟁사의 일시적 가격 할인이 축소된데다 캡슐형 등을 중심으로 KT&G 신제품의 반응이 좋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홍 연구원은 "KT&G의 2분기 연결 매출액은 9527억원, 영업이익은 2769억원으로 전망되며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인 2526억원을 9.6%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2분기 국내 담배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 줄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1분기 35.1% 감소보다는 큰 폭의 개선"이라며 "국내 담배 점유율은 58.1%로 전분기 대비 1.5% 상승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쟁사가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경우 하반기 내 점유율 60% 초반으로의 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KT&G의 또다른 수익원인 홍삼은 지난 6월 메르스 여파로 판매량이 증가했다. 홍삼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8.4% 증가한 2036억원이 예상된다.

홍 연구원은 "예상보다 빠른 담배 수요 회복세와 홍삼 매출의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배당 매력과 이익 모멘텀(상승 동력)은 하반기 갈수록 강해질 것"이라고 지속적인 비중확대 전략을 추천했다.

내년 실적 전망 역시 긍정적이다. 백운목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는 판매량이 10% 증가하고, 가격도 1% 올라 내수 매출액이 11.5% 증가할 전망"이라며 "시장점유율도 내년에는 58.2~58.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유안타證, 파생결합상품 4종 공모

250억 규모 ELB 1·ELS 3종

유안타증권은 오는 10일까지 다양한 조건과 수익구조로 설계된 ELB 1종, ELS 3종을 총 25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ELB 48호는 CSI3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만기 1년 6개월의 원금보장형 상품이다. CSI300지수가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100%)의 125%를 초과해 상승한 적이있으면 2%를 지급한다. 125%를 초과해 상승한 적이없고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100%)의 125%이하면 최대 18.75%를 지급한다. 또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100%) 이하일 경우에는 원금이 지급된다.

ELS 3400호, 3401호는 만기 3년의 스텝다운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다.

ELS 3400호는 KOSPI200지수, HSCEI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각 최초기준가격(100%)의 90%(6,12개월), 85%(18,24개월), 80%(30,36개월) 이상인 경우 연6.30%의 수익률로 조기상환된다. 또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기간 동안 최초기준가격의 55%미만으로 한번이라도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18.90%(연6.30%)의 수익률로 만기상환된다.

ELS 3401호는 HSCEI지수,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각 최초기준가격(100%)의 85%(6, 12, 18개월), 80%(24, 30, 36개월) 이상인 경우 연8.10%의 수익률로 조기상환된다. 조기상환이 되지않더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5%미만으로 한번이라도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24.30%(연8.10%)의 수익률로 만기상환된다.

ELS 3402호는 만기 3년에 매 1개월마다 KOSPI200지수, HSCEI 지수의 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100%)의 60%이상이기만 하면 매월 0.4175%(연5.01%)의 절대수익을 지급하는 쿠폰지급식 스텝다운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다. 매 6개월마다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100%)의 90%(6,12개월), 85%(18,24개월), 80%(30,36개월)이상인 경우 조기 또는 만기상환된다.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0%미만으로 한번이라도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총 누적수익 15.03%의 수익률로 만기상환된다.

최소가입금액은 100만원(100만원 단위)으로 전국 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김보배기자

황영기 회장 "무신불립…고객 신뢰가 생명"

금투協 '신뢰회복 결의대회' 국민연금 개편 전문성 강화 원화의 국제화 필요성 제안

8일 금융투자협회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금융투자업계 자율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지원하고 불건전한 영업관행에 대한 업계의 쇄신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황영기 금투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업계 스스로 고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을 해 나갈 때 금융개혁도 빛을 발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규제 개혁을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개선의지를 요구했다.

황 회장은 그러면서 논어 안연편(顔淵篇)의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뜻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인용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신뢰인 것처럼 자본시장도 마찬가지"라며 신뢰를 강조했다.

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금융투자업계 자율결의 대회'에서 황영기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제공

◆ 국민연금 개편·원화의 국제화 필요성 대두

이날 금융투자업계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거래소, 사적연금시장의 대대적인 개편'과 '원화의 국제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한국경제가 저성장·저금리의 뉴노멀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이 노후 대비 장기투자시장으로 전환하면서 사적시장(private market)으로의 영역 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신 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체제는 운용 목표와 허용위험한도 설정이 미비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와 실무조직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상과 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소와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거래소의 구조개혁안이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연내에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며 "사적연금도 노후자산의 중장기 자산배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자본수입 시대에서 자본수출 시대로의 전환에 맞춰 원화 국제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원화차입 신고 한도 폐지, 비거주자의 원화 보유 확대 ▲거주자의 역외원화증권 발행,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유통 등 원화채권거래 자유화 ▲비거주자의 유사원화계정 통합 및 비거주자 간 원화계정 이체 허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금융신뢰는 곧 규제와 윤리의 함수

한편 박상용 연세대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신뢰는 규제와 윤리의 함수로서 규제 완화의 대전제는 윤리강화"라며 "내부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을 밀어붙이는 영업관행을 중단하고 영업행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개별 금융투자회사의 불합리한 영업행태가 전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신뢰의 외부효과는 자본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데, 시장의 신뢰에 무임승차하려는 유인을 배제하고 신뢰 형성을 위해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석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투자자 이익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구축과 전문성 향상, 법령과 규정 준수를 통한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으로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보배기자 bobae@

삼성물산 합병, 기업지배구조원도 반대

“물산 주가 낮고 모직 주가 높을때 합병 결정”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에 영향 클 듯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반대 의견이 국내외에서 쏟아지고 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기관투자자서비스)가 양사 합병에 반대를 권고한데 이어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반대한다고 권고했다.

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8일 “최근 국민연금 측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반대하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이 출자해 만든 의결권 자문기관으로 최근 국민연금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한 자문을 의뢰받았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법적으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지만 합병 시점이 삼성물산 주가가 낮고 제일모직 주가가 높은 가운데 결정돼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이뤄졌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절차는 관련법에 따라 진행돼 문제가 없지만 삼성물산의 주식가치가 저평가된 시점에서 결정됐다는 지적이다. 세계 최대 자문기관으로 국민연금 자문도 맡고 있는 ISS 역시 지난 3일 의견서에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합병 이후 시너지 효과에 대한 전망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의결권 자문회사 글래스루이스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조건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글래스루이스는 “주주 입장에서 합병을 왜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고 합병을 추진하는 경영진 행태도 퇴행적(regressive)”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주총 안건 분석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 역시 지난달 9일 합병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결정할 때 자문을 받는 곳 중 하나로 의사결정에 강제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기관투자자와 주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주가치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오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에 앞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최종 의견을 결정할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重, 해양플랜트 수주 잭팟… 연목표 60% 돌파

유조선 11척·컨선 10척 등 계약금액 90억 달러 달성

삼성중공업이 최근 대규모 해양플랜트를 잇달아 수주하며 지난해 매출의 절반을 넘어섰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6일 미주지역 선주로부터 반잠수식 원유생산설비(세미 FPS) 1기를 수주했다.

계약 금액은 3370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12조8791억원의 2.6%에 해당하는 규모다.

납기는 2017년 7월 5일까지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연이어 2건의 해양설비 공사를 따내며 6조4510억원에 달하는 수주 잭팟을 터트린 바 있다.

지난해 매출의 50%에 이르는 규모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30일 셸(Shell)사로부터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 3척을 5조2724억원에 수주했다. 전년 매출 대비 40.9%에 해당한다. 계약 기간은 2023년 11월 30일까지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에 체결한 계약 금액은 FLNG 3척의 선체 부분의 제작비만 반영한 것이다.

상부 플랜트 설비를 비롯한 전체 공사금액은 기본설계를 마친 뒤인 2016년 하반기에 정해질 예정이다.

또 이번 계약은 발주처의 공사진행통보 조건부 계약이다.

기본설계를 마친 후 발주처에서 공사진행통보를 해야 건조가 시작될 수 있다고 사측은 전했다.

삼성중공업은 바로 전날인 지난달 29일에도 노르웨이 스타토일(Statoil)사로부터 해양 플랫폼 2기를 1조1786억원에 수주하는 계약을 따낸 바 있다. 전년 매출 대비 9.2%에 해당한다. 납기는 2018년 12월 12일까지다.

해당 플랫폼 2기는 노르웨이 스타방가시 서쪽 140㎞ 해상에 있는 요한 스베드럽 유전에 투입되는 해양 생산설비다.

이 플랫폼들은 원유를 정제·생산하는 프로세스 플랫폼과 유정(油井)에서 채굴한 원유를 프로세스 플랫폼까지 이송하는 라이저 플랫폼으로 구성된다.

설비 중량은 프로세스 플랫폼이 약 2만5000톤, 라이저 플랫폼이 약 2만1000톤에 달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요한 스베드럽 유전은 추정 매장량이 17억~30억 배럴에 달하는 초대형 광구”라며 “향후 노르웨이 석유생산량의 최대 25%를 담당하게 될 핵심 유전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들어 유조선 11척, 컨테이너선 10척, LNG선 2척, 세미 FPS 1기, FLNG 3척, 해양 플랫폼 2기 등을 수주했다.

계약 금액은 총 90억 달러로 연간 수주 목표인 150억 달러의 60%를 채웠다.

/이정필기자 roman@

LG전자 빌딩 에너지관리 시스템인 LG비컨(BECON)은 건물 내 에너지 사용 현황을 통합 모니터로 제공한다. LG전자가 마산대학교 중앙관제실에 설치한 LG비컨 통합모니터.

인덕대 이어 한양대도 ‘그린캠퍼스’

LG전자

대학 특화 절전시스템 조성 확대

LG전자가 대학 시설에 특화된 에너지 관리시스템과 초고효율 제품을 앞세워 ‘그린캠퍼스’ 조성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초 인덕대에 PAC 무선 제어시스템과 초고효율 냉난방기를 설치한 데 이어 이달 중 한양대에도 PAC 무선 제어시스템을 시공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LG전자는 12년 신라대학교, 14년 마산대학교에 ‘빌딩 에너지 관리시스템’과 친환경 초고효율 시스템에어컨과 LED 조명 등을 공급해 ‘그린 캠퍼스’를 조성했다.

‘PAC 무선 제어시스템’은 통신 기능이 없는 다양한 종류의 에어컨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관리하는 대학 맞춤형 솔루션이다. 시스템에어컨보다는 강의장 별로 개별 에어컨을 많이 설치한 대학 환경에 최적화돼 있다. 개별 난방기기에 무선 통신 모듈을 탑재함으로써 중앙에서 일괄 통제, 관리가 가능해 최대 30%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표적인 제품인 휘센 시스템에어컨 ‘멀티브이 슈퍼4’는 지난 10년간의 LG 인버터 기술력을 총집결시킨 초고효율 제품이다. 초고속 인버터 컴프레서를 적용해 전 모델이 에너지 효율 1등급을 획득했다.

LG전자 고유의 빌딩 에너지 관리시스템인 ‘LG 비컨(BECON)’은 ‘그린 캠퍼스’의 또 다른 원동력이다. ‘LG 비컨’은 대학 내 각 공간의 냉난방 기기와 조명 기기 등의 현황을 통합 모니터로 제공한다. 또 해당 기기를 자동으로 점검 및 제어하고,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분석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양성운기자

구형 평판TV 반납하면 30만원 깎아드려요

삼성전자

SUHD·UHD 보상 판매 내달 31일까지 55형 이상

삼성전자가 1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삼성전자 S 골드러시, TV 9년 연속 세계 1위 기념 보상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55형 이상 SUHD TV(10개 모델) 혹은 55형 이상 UHD TV(JU6900, JU7000, JU7500시리즈, 10개 모델)을 구매하고 LCD·PDP·LED·프로젝션 TV 등 구형 평판TV를 반납하는 고객은 최대 30만원이 할인된다.

삼성전자는 대리점 등 전속 판매점에서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S포인트’를 30만 포인트 제공하며 다른 할인 혜택에도 중복 적용할 수 있다. 반납하는 TV는 브랜드·제조일자·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제품이 가능하며 신규 구매한 TV의 배송과 설치 시점에 구형 TV를 반납하면 된다.

삼성전자 모델이 ‘삼성전자 S 골드러시, TV 9년 연속 세계 1위 기념 보상판매’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20개 모델에 걸친 대규모 TV 보상판매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보상판매를 계기로 SUHD TV의 대중화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삼성전자는 기대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3일 최저 200만원대의 SUHD TV인 JS7200 모델 3종(50, 55, 60형)을 출시하며 SUHD TV 라인업을 확대한 바 있다.

/조한진기자 hjc@

LG, 내수활성화 총력

전통시장 상품권구입 협력사 긴급 자금 지원

LG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등으로 인해 침체된 내수경제 활성화와 극심한 장기 가뭄과 그리스 위기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힘을 더한다.

LG는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 중소 협력사 자금 지원, 농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 가뭄 지역 봉사단 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우선 LG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0억원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들과 협력회사에게 지급해 국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 협력사의 재정 부담을 분담하고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600억원의 긴급 자금을 조성, 협력사에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이 자금은 금융기관 이자가 부담되거나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협력사들에 지원된다.

/조한진기자

현대家 도미노 실적부진 '현실로'

'맏형' 현대차 글로벌 판매부진 부품 계열사 현대위아 '적신호' 2219억 채무보증 결정 골머리

현대위아 본사. /현대위아 제공

현대자동차그룹 부품 계열사인 현대위아의 2분기 실적에 적신호가 켜졌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부진한 실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8일 현대·기아자동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대차는 해외에서 총 208만547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3.2% 감소했다. 기아차는 해외에서 총 128만6859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했다.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매출의 대부분을 현대·기아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대·기아차의 실적 부진은 부품 업체의 성적표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금융투자업계는 현대·기아차의 저조한 중국 판매 실적으로 현대위아의 엔진 공급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자동차연석회의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1~5월 중국 누적 승용차 판매량은 71만5736대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다. 이 중 현대차의 판매량은 45만84대로 3.5% 감소했다. 점유율은 9.5%로 1.1% 포인트 하락했다.

이명훈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위아의 현대차그룹 내 엔진 공급 점유율은 확대되고 있으나 현대·기아차 부진으로 업종 내에서 받던 프리미엄이 소멸됐다"며 "올해 2분기와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도 각각 1286억원과 5112억원으로 종전보다 13.7%, 5.9% 낮췄다"고 말했다.

현대위아는 1분기에 매출액 1조 9893억원, 영업이익 1302억원, 당기순이익 1068억원의 실적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0%, 3.5% 감소했다.

현대·기아차는 성장하고 있는 중국 로컬 업체,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 업체, 폭스바겐을 비롯한 유럽 완성차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다. 이들은 앞 다퉈 가격을 인하하는 등 공격적인 판촉 활동을 벌여 경쟁은 더 심화되고 있다.

현대위아는 지난달 말 멕시코 계열사인 현대위아멕시코에 2219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 이로써 현대위아의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총 잔액은 9337억원이 됐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2219억원 채무보증은 현대위아멕시코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회사인 현대위아가 보증을 선 것"이라며 "엔진 공급 물량 감소에 대해서는 회사 내·외부적으로 여러 이야기가 돌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현대위아의 주식 종가는 9만450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9만6700원) 2.28% 감소했다.

/정용기기자 yonggi@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3년간 4000억 투자 '안전 최우선' 실천

SK하이닉스 전문인력도 80명으로 증원

SK하이닉스가 '안전 최우선 경영' 실천을 위한 노력에 나섰다.

SK하이닉스는 그룹의 지원 아래 지난 5월부터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운영중인 '특별 안전 점검단'을 주축으로 다각적인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안전보건 관련 투자를 늘린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이천과 청주 사업장을 기준으로 1230억 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이를 매년 10%씩 늘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총 4070억 원의 재원을 안전관리 및 시설 강화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전문 인력도 추가로 채용한다. 현재 40명 수준인 안전관련 전공 인력을 2016년까지 80명 수준으로 두 배 가량 증원할 계획이다. 특히 추가로 채용한 인원 중 일부는 SHE(Safety·Health·Environment) 관리 실태 점검을 전담하기 위해 신설되는 'SHE감사조직'에 배치되어 보다 전문적인 상시 안전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와 협력사 안전관리 향상 작업, 안전 전문인력 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세밀한 안전관리 활동도 함께 추진 중이다.

하반기에는 외부 전문 기관을 선정해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 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SK하이닉스 측은 "안전 최우선 경영 실천을 통해 세계 일류 수준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안전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조한진기자 hjc@

한화, 복지관에 과학 꿈나무 '읽을거리' 채운다

과학도서 800권 기증

㈜한화(사장 이태종)는 서울 수색동 은평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업장 소재 7개 도시(서울, 대전, 보은, 구미, 여수, 아산, 창원) 내 8개 사회복지기관에 과학도서 800권을 기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한화가 2011년부터 진행한 교육기부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아동이 도서를 통해 과학을 친근하게 느끼고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홍기택 한화 차장은" 책은 읽는 사람에게 다양한 간접경험을 하게 해 준다"며 "아이들이 책을 통해 과학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필기자 roman@

현대글로비스, 201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대글로비스는 2015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사진)를 8일 발간했다.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이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균형있는 성장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영기법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고객 만족 ▲안전한 운송 ▲동반 성장 ▲임직원 성장 ▲기후변화 대응의 다섯 가지 핵심이슈를 선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대글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물류·유통 부문의 차별화된 가치를 분석하고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다할 방침이다.

현대글로비스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표준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 Core'를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공신력을 높였다고 전했다. 또 보고서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적 인증기관인 'DNV인증원'의 검증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고서는 홈페이지(www.glovis.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필기자

상반기 리콜 42만대… 국산 한국지엠·수입 벤츠 '최다'

전년比 25.7% 증가

안전결함 관련 시정조치(리콜)된 자동차가 올해 상반기 42만대를 넘어섰다.

8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따르면 1~6월 국산 20개 차종 33만5040대, 수입 202개 차종 9만172대 등 총 42만5212대가 리콜 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3만8402대보다 8만6810대(25.7%) 증가한 수치다.

차종 수도 올해 1~6월은 222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8종(국산 6·수입 162)보다 늘어났다.

제작사별로 한국지엠이 가장 많은 21만7884대를 리콜했다.

한국지엠은 크루즈, 라세티 프리미어와 올란도 등 3개 차종 9만9985대를 브레이크호스 누유로 리콜하고 말리부와 알페온 등 7만8615대를 안전벨트 결함으로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사측은 지난해 미국 내 점화 스위치 결함 관련 대량 리콜을 계기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리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는 5만6311대를 리콜해 2위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아반떼(3만6259대)와 그랜저 하이브리드(1만604대), 제네시스(5002대), i30(4446대) 등 4개 차종을 리콜했다.

기아자동차는 봉고3 1.2t(4만7347대), 쏘울(6374) 등 5만3721대를 리콜해 3위에 올랐다.

르노삼성자동차는 SM5 등 2만8073대를 리콜했다.

쌍용자동차는 올 상반기 리콜 차량이 없었다.

수입차 가운데는 메르세데스-벤츠가 E 시리즈 등 3만4756대를 리콜했다.

BMW는 1만238대를 리콜했다.

다음으로 포드 5594대, 크라이슬러 3867대, 닛산 3827대 등이 뒤를 이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중반부터 리콜 건수가 급증하면서, 올해 리콜 대수가 100만대 가까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정필기자

THE 맛있는 One샷

푸드트럭을 타고 펼치는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요리배틀!

t.cast | E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N CINEf CHAMP FOX FOX life FX

첫방송 | 7월 16일 | 목 | 밤 11시

다음카카오 vs 네이버, 손바닥 위 검색 전쟁

5월 모바일 검색 점유율, 네이버 76.1% 압도 다음카카오 '샵검색' 특화서비스로 추격나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모바일 검색시장을 놓고 '손바닥 위' 전쟁을 시작했다. 양사 간의 경쟁은 전통적 포털 검색 강자와 모바일메신저서비스 강자 간 플랫폼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8일 온라인 시장조사기관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5월 기준 모바일 검색 점유율에서 네이버는 76.1%로 다음카카오(12.3%)나 구글(11.2%)을 압도적인 격차로 따돌렸다. 특히 네이버의 하루 방문객이 2400만명에 이르는 등 검색 점유율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런 배경은 네이버가 탄탄한 검색 알고리즘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검색은 개별 데이터베이스(DB)에서 추출한 답변이나 단순한 관계를 답하는 것을 넘어 입체적인 관계정보까지 제공한다.

네이버는 강력한 검색기술을 앞세워 모바일에서도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러 사람이 반응을 보이는 특정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결과를 보여주고 분석해주는 실시간 반응시스템(ReACT)과 실시간 이벤트 탐색(RED) 등 검색기술을 모바일에 적용하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해 묻지 않아도 알아서 답해주는 개인 맞춤형 검색 서비스가 목표다.

네이버 추격에 나선 다음카카오의 성장세도 거침없다. 3700만명에 달하는 월간 사용자(MAU)를 확보한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이용자에게 특화된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내놓은 '카카오톡 샵검색'은 다음카카오 검색 전략의 핵심이다.

카카오톡 채팅창에 추가된 카카오톡 샵검색은 채팅 중에 간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채팅창에 공유할 수 있어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친구와 채팅을 하다가 부천역에서 영화를 보기로 했다면 보고 싶은 영화나 특정 영화관을 검색해 공유할 수 있다. 사용자를 카카오톡 내에 더 오래 잡아두기 위한 전략이다.

다음카카오는 샵검색 외에도 카카오검색을 선보여 자사 웹과 앱에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모바일 검색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모바일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모바일광고 시장이 매력적인 수익원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양사 모두 모바일 검색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맞춰 사업을 노출하려는 요구가 여전히 강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광고 시장은 8329억원이다. 2013년(4159억원), 2012년(2159억원)과 비교해 매해 2배씩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모바일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처음으로 3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U+ HDTV 가입하고 여행가세요

LGU+, 'LTE비디오포털' 출시 기념 경품행사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모바일 세계 최초 'LTE비디오포털' 출시를 기념해 풍성한 이벤트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는 론칭 기념 이벤트는 기존 자사 모바일 인터넷(IP)TV인 유플러스 HDTV 가입자는 물론 신규 가입자가 LTE비디오포털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로그인만 하면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타사 가입자도 SNS ID 간편 가입만으로 참여할 수 있다.

1등(1명)에게는 20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 이벤트 기간 동안 매주 추첨을 통해 총 50명에게 LTE비디오포털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마이빔 프로젝터(2명), 보스스피커(3명), 설빙 빙수(45명)을 제공한다.

특히 로그인만 해도 TV와 최신 영화는 물론 외국어, 자격증, 인문학 특강 등 '프리미엄 지식팩'의 다양한 주문형비디오(VOD) 1만편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친구나 가족 등 지인에게 LTE비디오포털 앱을 추천만 해도 100% 당첨되는 VOD 쿠폰(1000원)을 기본 제공한다. 여기에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200명), 설빙 빙수(100명) 등도 준다. 자세한 내용은 LTE비디오포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문경기자

SKT "가족과 위치정보 공유하고 '안심'하세요"

'T위치공유 프리미엄' 출시

사내 모델들이 SK텔레콤의 T위치공유 프리미엄 서비스를 알리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최대 10명의 가족·지인과 위치정보를 공유하고 응급상황 알림 등 다양한 안심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T위치공유 프리미엄' 서비스를 8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T위치공유 프리미엄은 가족뿐 아니라 지인과도 편리하게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본 기능과 가족 고객 대상 안심 특화 기능을 추가해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제공된다.

이용자는 기능을 통해 설정한 시간 동안 최대 10명에게 본인의 위치 및 모임 장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용자끼리는 서로의 현재 위치뿐 아니라 이동 경로, 이동 속도를 확인할 수 있어 일일이 통화를 하지 않더라도 도착시각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지인에게도 URL을 전송해 상대방이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끼리는 수시로 공유 요청을 하지 않아도 항상 위치 확인을 할 수 있다. '귀가타이머', '이어폰 언플러그', 'Zone+' 등 가족 특화 안심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귀가타이머는 가족 구성원이 귀가 예상 시간을 설정해두면 예상 도착시간 초과 시 위험 상황을 가족, 지정 수신인에게 알려주는 기능이다. 이어폰 언플러그는 위급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기능이다. Zone +는 사전에 안심·위험존을 등록하면 가족이 해당 존에 진·출입 시마다 가족 구성원에게 알려주는 기능이다.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SK텔레콤 고객이라면 T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용료는 월 1500 원(부가세 별도)이다.

/정문경기자

KT, 음성로밍 안심차단 서비스 출시 KT는 고객들이 음성로밍 서비스에 대한 요금폭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로밍 요금 알림'과 '음성로밍 안심 차단' 서비스를 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모델들이 KT의 음성로밍 안심차단 서비스를 알리고 있다. /KT 제공

SKT, 국내 최대 규모 'IoT 해카톤' 대회 개최

SK텔레콤이 국내 사물인터넷(IoT)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개발자들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SK텔레콤은 모바일 칩 설계업체인 영국 ARM 사와 함께 오는 8월 국내 최대 규모의 'IoT 해카톤(Hack-A-Thon)' 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해카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다. 해킹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사이에서는 흔히 '난이도 높은 프로그래밍'이란 뜻으로 쓰인다.

다음달 15일부터 무박 2일로 서울 종로구 SK 팹랩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IoT 플랫폼인 SK텔레콤의 씽플러그와 ARM 사의 IoT 개발보드인 엠베드를 활용해 IoT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참가 신청은 SK텔레콤 'T오픈랩'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3일까지 받으며, 신청자 중 8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참가자들에 대해서 씽플러그, 엠베드 등 대회 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IoT 기술에 대한 사전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SK텔레콤은 대회 기간 동안 3D 프린터, 3D 스캐너 등이 구비되어 있는 이동형 시제품 제작소 팹트럭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이를 이용해 아이디어를 실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또한 SK텔레콤의 대표적 상생 프로그램인 'T 오픈랩'과 '브라보! 리스타트'를 통해 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창업과 사업화도 지원한다.

/정문경기자

송학식품 '대장균 떡' 유통·서류 조작 파문

사과문

송학식품은 문제된 본사의 떡볶이 제품과 관련하여 소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송학식품의 제품을 믿고 사랑해 주신 소비자분들의 분노와 실망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송학식품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식품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언론보도 내용과 달리 저희 송학식품은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지방자치단체의 통보에 따라 전량 수거·폐기하였으며,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7월6일자 본사 관련 언론보도는 입증되지 않은 경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며,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250여명의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송학식품은 앞으로 소비자분들이 저희 제품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식품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소비자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송학식품 대표이사 오현자

송학식품 사과문 통해 "전량 수거… 폐기, 시중 유통 안돼"
경찰 "혐의 확신… 이달 중순 안에 수사 끝내고 송치 예정"

송학식품(대표 오현자)이 '대장균 떡' 유통파문과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8일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반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송학의 불법 혐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송학식품 홈페이지 사과문의 내용은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은 지방자치단체의 통보에 따라 전량 수거·폐기 했으며 언론이 경찰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했다는 것이다. 덧붙여 송학식품은 "(혐의와 관련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며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해 정확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게재했다.

하지만 인천중부경찰서 수사 1과 지능팀에 따르면 대장균 제품 유통과 서류 조작은 이미 확실한 제보를 토대로 수사 중이다. 이달 중순 내로 관련자를 전부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 1과 지능팀 모 팀장은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우리는 송학식품의 혐의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송학식품에 대해 전체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며 오현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1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3일 기각돼 현재 불구속 기소 중이다.

인천지방법원은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다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해썹인증이 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해 그 인증이 무효되지 않는 점, 대장균이 검출된 식품이 식품위생법 제4조의 위해식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조사에 순순히 응한 점 등을 들어 구속을 기각했다.

본지는 송학식품 담당자와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연결할 수 없었다.

송학식품은 지난해 매출 약 550억원의 떡볶이 떡 업계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이다. 경찰 측은 송학식품이 2년 동안 180억원이 넘는 대장균 검출 제품을 유통했다고 주장했다.

/김성현기자 minus@metroseoul.co.kr

신동빈 "변화의 시대 선제적 대응력 키워달라"

상반기 그룹 사장단회의
경영상황·하반기 전망 논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사진)은 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올해 상반기 그룹 사장단회의에서 메르스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며 "변화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능력을 키워달라"고 주문했다.

사장단회의에는 신 회장을 비롯해 46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와 정책본부 임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국내외 경영상황과 하반기 전망 등이 논의됐다.

신 회장은 "요즘처럼 모든 것이 급속히 변하는 세상에서는 무엇이 리스크인지조차 모르는 무지(無知)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포착 능력과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과 트렌드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워진 경영환경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며 "우리의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핵심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연관사업을 가장 먼저 고려해 "우리의 경쟁력이나 핵심역량이 통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객니즈나 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른 포트폴리오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을 위한 인적 경쟁력도 언급했다.

신 회장은 "미래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쟁력이 그 효력을 잃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라이벌이 나타나 우리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며 "미래인재에 대한 투자와 여성인재 육성, 해외인재 발굴 등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홈플러스, 한방화장품 '린' 출시 홈플러스(대표 도성환)가 한생화장품(회장 박혜린)과 손잡고 NPB 한방 화장품 '린(璘)'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린 비결 수 에센스와 린 비결 수 크림을 2만6000원에 판매하고 린 비결 윤 수액과 린비결 윤 유액은 각 2만4000원에 판매한다. 린 비결 윤 에센스, 린 비결 윤 크림은 각 2만6000원, 린 비결 올인원 클린징 워터는 1만3000원에 선보였다. /홈플러스 제공

서울 시내면세점 PT… 화장품 업체도 촉각

네이처리퍼블릭·토니모리 지분 참여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PT 심사가 9일 예정된 가운데 화장품 업체들도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들은 단독 참여가 아닌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했기 때문에 PT 발표에 전면으로 나서지 않는다. 다만 지분 참여를 한 만큼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모두 중소·중견 면세점에 뛰어들어 14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코스닥 상장 대표 여행사 레드캡투어와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입찰을 신청했다. PT 발표는 면세점 법인 동대문24면세점에서 전담하고 있다. 법인은 네이처리퍼블릭과 레드캡투어가 각각 지분 35% 씩을 소유해 총 70%를 가진 공동 1대 주주로 돼 있다. PT에서는 24시간 면세점 운영과 국내 브랜드 50% 이상 입점 유치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는 "중소·중견이 대기업보다 경쟁이 치열하고 누가 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며 "법인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10일 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니모리 역시 하나투어가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엠면세점 컨소시엄에 참여했지만 PT 발표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PT 발표자로는 권희석 하나투어 부회장이 나설 예정이다. 권 부회장은 에스엠면세점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별 시너지 효과와 여행업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차별화 전략을 내세울 계획이다.

하나투어 측은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면 서비스·고객 유치에 큰 네트워크를 가진 하나투어와 화장품 유통·판매에 노하우를 가진 토니모리가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초복 앞둔 유통업계 '보양식 마케팅' 총력

다양한 먹거리 기획전 '봇물'

이달 13일 초복(初伏)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본격적인 '보양식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메르스 여파로 침체됐던 시장 분위기를 이를 통해 반전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롯데마트는 15일까지 보양식 상품을 정상가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판매한다. 백숙용 영계(500g)와 백숙용 토종닭(1kg)은 엘포인트 회원에 한해 정상가보다 30% 낮은 각 2800원과 7630원에 판매한다.

홈플러스는 15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점포와 온라인쇼핑에서 대규모 보양식 할인전을 연다. 이 기간 홈플러스는 총 50만 마리 생닭 물량을 확보했다.

삼계탕용 생닭(700g이상)을 마리당 4300원, 3마리 구매 시 마리당 3300원 수준인 1만원에 판매한다. 백숙용 토종닭(1050g이상)은 1만1000원, 행사카드 구매 시 8800원, 친환경생닭(800g 이상)은 5900원 초특가에 마련했다.

11번가는 초복을 앞두고 MD가 인증하는 안전 먹거리 36여 종을 최대 43% 할인하는 '2015 초복맞이 삼복 혜택! 토·닭·토·닭' 기획전을 진행 중이다. 행사기간 매일 오전 10시 하루 선착순 500명에게 영계닭 3마리를 32% 할인한 7390원에 판매한다.

옥션은 9일까지 삼계탕용 영계 2만수를 마리당 2500원에 판매하는 '집에서 즐기는 보양밥상' 기획전을 연다.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삼계탕 속재료를 증정하며 4마리 이상 구매할 경우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식품업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풀무원 계열의 올가홀푸드(이하 올가)는 13일까지 '더(THE)건강한 복날 맞이'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을 통해 삼계탕·전복·장어 등 다양한 건강 보양식과 친환경 제철과일을 선보인다.

친환경·유기농식품 업체 초록마을은 '무 항생제 친환경 토종닭' 예약판매를 진행한다. 친환경사료를 사용, 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특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괜히 일본 따라했나… 롯데百 직매입 부진

이세탄百 롤모델 전략 실패
입점매점 수수료 크게 줄어
백화점 영업이익 961억 감소

롯데백화점(대표 이원준)이 2013년 이세탄백화점 신주쿠점의 직매입 확대 운영 방식을 롤모델로 MD(상품기획)전략을 바꿨지만 1년 새 영업이익이 13% 하락하면서 실패한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다.

식품 부문의 경우 입점 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재고와 판매를 부담하지 않았던 특정 매입방식에서 재고와 판매를 모두 책임지는 직매입으로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전문 역량 부족이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013년 백화점 경영진으로부터 정기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MD 차별화를 주문하고 자체 개발·발굴한 상품의 직매입 비율을 30%까지 늘린 이세탄백화점 신주쿠점을 롤모델로 꼽았다. 이세탄백화점은 직매입 비율을 확대하면서 매출이 본점보다 7000억원 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회장은 롯데백화점도 기존 입점 매장이나 브랜드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매입 등을 통해 차별화된 상품 라인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신 회장은 2013년 장기 불황 타개를 위한 카드로 직매입 확대를 내놨다. 이는 식품 부문에도 적용됐다.

하지만 직매입 도입 1년 만에 매출은 1283억6500만원, 영업이익은 961억3600만원 감소했다.

롯데백화점의 매출은 2014년 8조437억4500만원으로 전년 8조 1721억1000만원 대비 1283억6500

만원(1.57%)하락했다. 영업이익은 2014년 6025억5800만원으로 전년 6986억9400만원보다 961억3600만원(13.8%) 감소했다.

롯데백화점의 실적 부진은 매장 임대 방식의 특정 매입이 아닌 재고와 판매를 모두 책임지는 직매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직매입은 백화점이 직접 상품을 구매해 판매하고 재고까지 책임지는 구조다.

그간 롯데백화점은 입점 업체 등을 통해 매장 매출의 30~4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았다. 매출이 1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3500만원의 수수료를 꼬박꼬박 챙긴 것이지만 이를 포기한 것이다.

그 결과 롯데백화점의 지난해 식품 부문 성장률은 10.9%로 시행 전인 2012년 18.7%보다 7.8%포인트 줄었다.

롯데백화점의 식품사업 부진은 내부 인적 역량 부족 때문으로도 분석된다.

오세조 연세대학교 교수가 분석한 '백화점거래선진화 모델'에 따르면 백화점들이 위험요소가 없는 특정매입 방식을 고수하며 운영해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내부 인적 역량을 키우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상품 매입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어 재고부담이 없는 임대 또는 특정매입형태를 원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백화점의 운영방식은 신격호 회장때부터 일본 백화점 경영방식을 따르는 것이 불문율처럼 돼 있다"며 "일본 백화점 식품관의 경우 직매입을 하고 있어 한국 롯데백화점도 이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잠실역 지하광장으로 내려온 판다 잠실역과 롯데월드몰 사이 지하 광장에 전시된 판다 인형들이 8일 비를 피해 롯데월드몰과 잠실역 지하광장 등 실내에 전시됐다. '1600 판다+'전시회는 30일까지 롯데월드몰 잔디정원과 석촌호수 일대에서 진행된다. /롯데물산 제공

'쿡방' 열풍… 싱글족 겨냥 주방용품 들썩

간편 조리 용품 등장
세트 상품은 간소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쿡방(요리 방송)' 열풍이 불면서 주방 용품은 물론 생활자기까지 싱글족들을 겨냥한 신제품을 내놓고 있다. 오븐이나 전자레인지를 자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한 맞춤형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월드키친의 코닝웨어가 선보인 '팝인머그'는 손잡이가 달린 머그컵 모양의 미니 쿡웨어다. 죽이나 스프·볶음밥·라면 등 한 끼 식사를 담아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톤웨어 소재라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뚜껑에 쉽게 여닫을 수 있는 스팀 배출구가 있어 열을 가하는 음식을 조리할 때 간편하다.

코닝웨어 팝인머그. /월드키친 제공

적은 양의 요리를 쉽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는 제품들로 구성한 휘슬러 '올 포 원 컬렉션'도 있다.

세트 제품의 경우는 구성품을 간소화하고 있다.필요한 제품만 구매하는 최근 혼수 트렌드에 따라 예비부부들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행남자기는 일체형 식기 '봄봄'을 선보였다. 밥 그릇·국 대접·찬기 2종·찌개 그릇 등 총 5피스, 다용도 냄비 받침과 수저받침으로 구성됐다. 식기를 크기대로 쌓으면 하나의 원 안에 들어가는 형태로 제작돼 수납하기에도 좋다.

한국도자기 리빙이 출시한 '바시미 올인원' 반상기는 한 끼 식사에 꼭 필요한 공기·대접·찬기 3종과 나무받침 등 총 6종류로 구성됐다.

업계 관계자는 "누구나 쉽게 요리할 수 있는 레시피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간편하게 요리하고 예쁘게 한 끼를 차려먹을 수 있는 홈 다이닝 제품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김치서 찾은 유산균, 日 특허 획득

CJ제일제당

'피부 유산균' 日 진출 탄력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이해선)은 한국전통발효식품인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CJLP133(이하 CJLP133)'으로 일본 특허를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CJLP133'은 7년의 연구개발 끝에 수백여개 김치에서 분리한 3500개 유산균 분석을 통해 이 중 133번째 균에서 피부 가려움 개선에 대한 기능성을 입증해 탄생한 김치유산균이다.

알레르기성 질환, 아토피, 자가면역질환 등에 대한 예방 또는 개선, 감염성 장 질환, 감염성 설사 등에 대한 예방과 치료용에 대한 신규

기능성이 있는 유산균임을 인정받게 됐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특허 등록을 계기로 일본 진출을 가속화할 예정"이라며 "'CJLP133' 유산균 균주는 물론 이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바이오 피부유산균 CJLP133까지 현지 시장에 진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보라기자

기부 하고 선물도 받으세요

LG생활건강

'베비언스 기부 앤 테이크'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이 '베비언스 기부 앤 테이크' 캠페인을 7월 한달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홈페이지(http://www.babience-giveandtake.com)에서 LG생활건강이 추천하는 6명의 육아관련 파워블로거들이 작성한 육아스토리 중 공감가는 이야기를 골라 추천하면 아이 이름으로 된 기부증서를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파워블로거들의 육아스토리는 7월 한달 간 매주 수요일에 업데이

트 되며 한 고객당 하루 최대 6명의 블로거를 추천할 수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면 하루 최대 6번 100% 당첨 선물을 받을 수 있다.

LG생활건강은 '베비언스 기부 앤 테이크' 캠페인에 참여하는 고객 숫자에 비례해 동방사회복지회 아이들에게 다양한 베비언스 브랜드 제품을 기부할 계획이다. /김수정기자

일동후디스 식품나눔 협약
산양분유 등 4200캔 기증

일동후디스(회장 이금기)는 8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억5000만원 상당의 분유(산양분유·트루맘) 4200여 캔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일동후디스가 지원한 산양분유와 트루맘은 전국푸드뱅크사업단의 기부식품 중앙물류센터에서 광역푸드뱅크, 기초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으로 기증돼 식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일동후디스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저소득 계층의 영유아들도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보라기자

생보재단, 음독자살 예방 앞장

전북 4개 시·군에 '농약안전보관함' 500개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보재단)은 8일 전북 고창군 백양복지회관에서 전라북도 4개 시·군에 500개의 농약안전보관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군별로는 남원시 142개, 무주군 192개, 고창군 99개, 부안군 66개 등 총 500개의 농약안전보관함이 보급된다.

이날 전달식에는 심보균 전북 부지사, 김진술 고창군 부군수, 장명식 도의원, 유석쟁 생명보험재단 전무, 마을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생보재단은 한국자살예방협회, 전북과 지난 4월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은 농촌 노인들의 충동적인 음독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는 보관함을 각 가정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생보재단은 자살기도방법 중 농약음독으로 인한 자살이 15.4%로 두 번째를 차지하며 중소도시 특히 농촌지역의 농약음독 자살은 대도시보다 약 3배가량 높다는 것에 주목, 지난 2010년부터 본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보급된 보관함은 전국 14개시·군, 57개 마을에 2395개에 달한다.

더불어 농약안전보관함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보건소 담당자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보관함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과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8일 전북 고창군 백양복지회관에서 (왼쪽부터)유석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 염혜정 한국자살예방협회 팀장 등이 '전라북도 농약안전보관함 전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제공

유석쟁 생보재단 전무는 "재단의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이 수행된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건의 농약음독 자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전라북도 농촌 어르신들의 생명존중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배기자 bobae@metroseoul.co.kr

여름 자외선, 눈·두피·피부건강 치명적

여름철에 유의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여름 자외선이다.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특히 영향을 받기 쉬운 눈, 두피, 피부 등의 자외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하는 것이 좋다.

◆ 지속적인 자외선 노출, 눈의 노화와 안질환 유발

자외선이 눈의 각막, 수정체, 망막 등에 흡수되면 활성산소 발생과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등 눈의 노화를 앞당긴다.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소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단 진한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동공이 확장되어 오히려 더 많은 자외선이 침투될 수 있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선택할 때는 자외선 차단(UV) 효과 기능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 뜨거운 여름 햇빛은 두피와 모발에 치명적, 탈모 악화시켜

여름 자외선은 모낭과 성장기 모근을 약하게 해 모발 탈락이 쉬워져 탈모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두피와 모발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양산이나 모자를 착용해 보호하는 것이 좋다. 단, 모자를 착용할 경우에는 틈틈이 모자를 벗어줘 땀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여름철에도 깨끗한 피부 위해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야

자외선은 얼굴의 피부도 위협한다. 자외선 UVA는 오랜 시간 노출되면 기미, 검버섯, 주름 등에 영향을 미치며, UVB는 햇빛에 노출된 지 몇시간 만에 피부의 그을림 붉어짐 등을 동반한다.

현대약품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마화이트정'(사진)는 멜라닌의 생성에 중요한 효소인 티로시나제의 활성을 억제하여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하는 트라넥삼산 성분이 들어간 경구용 기미치료제이다. 2개월 복용 패턴으로 '벨라 더마화이트정'과 번갈아 꾸준히 사용하면 효과적인 기미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

/최치선기자 chisunti@

강강술래, 여름철 기력보충 '곰탕' 쏜다

이달 말까지 경품 대축제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본격적인 여름시즌을 맞아 고객들의 기력보충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한우사골곰탕 경품 대축제를 벌인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sullai.com) 경품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추첨을 통해 온 가족 보양식 한우사골곰탕박스(500㎖·10봉·20인분)를 선물한다.

강강술래 곰탕은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고 고소하며 레토르트 방식을 적용해 상온보관이 가능하다. 또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직접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 째 데워 바로 먹을 수 있어 캠핑이나 바캉스 간편식으로도 좋다.

이달 15일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곰탕박스(500㎖·10봉·20인분)를 60% 파격 할인된 2만8600원에판매한다.

한편 강강술래는 여름휴가와 방학을 앞두고 평소에 미뤄뒀던 독서를 하려는 이들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해외쇼핑 TOP LIST 710'과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를 선물한다.

'해외쇼핑 TOP LIST 71'은 홍콩·오사카·방콕·괌 등 4개 도시의 263개의 쇼핑 아지트와 꼭 사와야 할 아이템을 한 권에 담았다.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는 파국으로 끝난 대화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짚어주며 소중한 관계를 해치지 않는 21가지 대화의 기술을 알려준다.

/김보라기자 bora6693@

국내 첫 노조 전용 '유니온문자' 오픈

유니컴, 문자발송 사이트 출시

노동조합에서 많이 tM는 소식지, 대자보 등의 템플릿과 일러스트·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유니컴 제공

지난 10여 년간 노동조합 홈페이지시스템과 홍보업무를 진행해 왔던 유니컴(idad.co.kr)이 노동조합 전용 문자발송 사이트 '유니온문자'를 출시했다.

광고·홍보 제작업체로는 드물게 노동계의 홍보와 홈페이지시스템 구축을 진행해 온 유니컴은 그간 K은행노조, W은행노조, N증권사노조 등 다수의 노동조합 홍보를 전담 해왔다. '노조온라인통합관리시스템을 특허 출원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제작에도 활용해 여러 노동조합의 시스템을 제작·관리하는 등 상당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니온문자(unionsmss.co.kr)는 유니컴이 노동조합 홍보를 통해 축적해 온 일러스트와 사진 등 지적재산을 기반으로 SMS솔루션과 결합한 노동조합 전문 단체문자발송 사이트로 탄생했다. 노동운동과 사회참여 일러스트 작품활동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크레옹(필명)작가의 일러스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소통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니컴 우인덕 대표는 "그간 노동조합 홍보와 시스템구축 등을 진행하면서 노동조합을 통해 현장에서 느낀 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유니온문자'를 만들게 됐다" 고 밝혔다. 문의 : 02-515-6745

/최치선기자

방방곡곡 여름축제 한 눈에 본다

관광公, 휴가철 축제 지도 제작

한국관광공사는 여름휴가철 맞춤형 여행정보 시리즈 중 첫 번째로 올 여름 개최되는 전국의 시원한 여름 축제를 지도 한 장에 총망라해 소개(사진)한다.

해수욕장은 물론 시원한 강줄기 따라 펼쳐지는 다양한 여름축제와 풍성한 먹거리 축제 정보가 지도 한 장에 쏙 담겨 있다. 이 내용은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여행정보 홈페이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korea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말이 필요 없는 화끈한 보령 머드축제(7.17~7.26), 치킨과 맥주를 양껏 먹을 수 있는 대구 치맥페스티벌(7.22~7.26), 물의 고장 화천에서 펼쳐지는 물의나라 화천 쪽배축제(7.25~8.9), 굽이굽이 흐르는 동강줄기를 따라 펼쳐지는 영월 동강축제(7.29~8.2), 불과 빛의 도시 포항의로맨틱한 여름밤에 펼쳐지는포항국제불빛축제(7.30~8.2), 여름밤을 수놓는 천만송이연꽃의 향연, 부여 서동연꽃축제(7.10~7.19)가 이번 여름 개최된다.

한편 관광공사는 여름휴가철 맞춤형 여행정보 시리즈 2탄에서는 '자연에 안겨 한 박자 쉬어갈 수 있는 숲속 여행지'를, 3탄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전국 여름여행지 특집'을 7월 중순 소개할 예정이다.

/최치선기자

성신여대, 학부모 진학지도 아카데미

명지·상명대와 16·17·21·22일

성신여대(총장 심화진)가 명지대, 상명대와 함께 3개 대학 공동으로 오는 16일, 17일, 21일, 22일 나흘간 '학부모 진로진학지도 아카데미'를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고교생 학부모에게 사교육 도움 없이도 자녀에게 진로진학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두 개의트랙으로 구분해 열린다.

첫 번째 트랙은 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연수 프로그램이며 두 번째 트랙은 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연수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열린 2014학부모아카데미.

신청방법은 각 대학별 입학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8일까지 트랙별로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복현명기자 hmbok@

star bag

신곡으로 음원차트 석권

소녀시대의 신곡 'PARTY'가 8일 자정 발매와 동시에 온라인 음악 차트를 석권했다. 8일 오전 7시 기준으로 멜론, 엠넷닷컴, 벅스, 올레뮤직, 네이버뮤직, 소리바다 등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심장을 울리는 베이스 사운드와 소녀시대의 통통 튀는 보컬이 잘 어우러진 곡이다.

촬영 마친 '조선마술사'

유승호, 고아라 주연의 영화 '조선마술사'가 지난 2일 크랭크 업했다. 영화는 위험한 사랑에 빠져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무대에 오르는 조선시대 최고의 마술사 이야기를 그린다. 유승호의 전역 후 첫 작품이기도 하다. 후반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 개봉한다.

데뷔 10주년 스페셜 앨범

그룹 **슈퍼주니어**가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스페셜 앨범 '데블(Devil)'을 16일 발매한다. 타이틀곡 '데블'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10곡을 수록했다. 한편 슈퍼주니어는 오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슈퍼쇼6'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한다.

씨제스엔터에 새 둥지

배우 **류준열**이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씨제스 측은 "개성 넘치는 연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배우 류준열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올 하반기 '응답하라 1988'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8일 전했다.

몸매부각? 걱정안해… 연기 일부일 뿐

'프로듀사'로 뜬 **김선아**

김수현·아이유 등의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대거 출연한 드라마 '프로듀사'에서 튀는 역으로 극에 200% 활력을 불어넣은 신인 배우가 있다. 뮤직뱅크 막내작가 김다정을 연기한 김선아(22)다. 극의 흐름을 좌우하는 비중 있는 배역은 아니었지만 자신 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신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앞으로의 가능성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프로듀사'는 '응답하라 1997' 이후 두 번째 드라마 출연이예요. 하지만 연기의 기본기부터 발성까지 제대로 공부한건 '프로듀사'가 처음이었어요. 이전까지는 대사나 역할에 대한 느낌만 살려서 독학으로 했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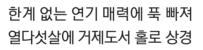
김선아가 연기한 김다정은 막내 같지 않은 당당함을 지녔다.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남자들을 이용할 줄 아는 관능적인 영특함과 치명적인 매력도 있다. 극중 상사로 나온 공효진을 말 한 마디로 '들었다 놨다'하면서 남다른 연애 조언까지 해준다. 그러나 김선아는 김다정과는 정반대의 인물이라고 말했다.

"절 처음 보는 분들은 제 실제 모습에 놀라세요. 원래 잘 웃고 둥근 성격이에요. 표정도 다양하고요. 엽기적인 표정에는 자신 있습니다. 다정이와는 다르게 남자를 잘 다루지도 못해요. 연애도 많이 못 해봤고요."

스스로를 집순이라고도 소개했다. 연기공부와 스케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 스물 두살, 하고 싶은 게 많을 나이이다. 하지만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다.

"어렸을 때 연기의 매력에 빠져 직접 하고 싶어졌어요. 목표가 확실해지니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하니까요."

거제도 출신인 그는 연기가 하고 싶어서 열 다섯살 때 혼자 서울로 왔다. 15세 소녀가 부모와 떨어져 낯선 곳에서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부모님께서 절 믿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거니까 징얼댈 수 없었고, 더 성숙해지려고 노력했죠. 아파도 꾹 참았어요. 무엇보다 거제도에서의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 했습니다."

한계 없는 연기 매력에 푹 빠져 열다섯살에 거제도서 홀로 상경

프로듀사서 신스틸러로 '눈도장' 카이스트 둥지… 모든게 감사해

요즘 김선아는 연기보다 몸매가 더 부각되고 있다. '프로듀사'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것도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피구를 했던 장면이었다. 덕분에 '피구녀'라는 별명도 얻었다. 그러나 김선아는 걱정하지 않았다.

"김다정은 정말 연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매가 드러나는 것도 연기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면에서 완벽함을 갖춘 김다정이 외적으로도 완벽한 부분이 있으니까 몸매라는 연기를 입힌 것이죠. 앞으로는 화장도 안 하고 후줄근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생기겠죠."

소속사가 없었던 김선아는 '프로듀사'에서의 존재감을 인정받아 배용준·김수현·박서준 등이 속한 키이스트로 둥지를 틀었다.

"'프로듀사'는 제게 꿈 같은 일들을 일어나게 한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고 소속사까지 생겼으니까요. 모든 게 다 감사하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직도 꿈 속에 있는 것 같아요."(웃음)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전주리)

여성극작가, 무대 중심에 서다

3회 한국여성극작가전 '심청전을 짓다' 등 3편 초연

한국여성연극협회가 주최하는 제3회 한국여성극작가전이 7월과 10월 대학로 소극장 알과핵과 여우별 소극장에서 진행된다.

2013년 이른 봄 시작된 한국여성극작가전은 주목받는 한국 여성극작가의 희곡을 무대에 올려왔다. 올해는 김정숙의 '심청전을 짓다', 김수미의 '현장검증', 박경희의 '트라이앵글'을 초연으로 올린다. 가을 무대에서는 1920~30년대 여성예술인 나혜석과 김명순의 희곡을 낭독공연으로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10월 19일에는 '한국여성극작가전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심청전을 짓다(부제:심청이 제삿날 밤 생긴 일)'(7월 15~19일·소극장 알과핵)은 우리의 고전 '심청전'을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이다. 심청전의 이야기를 지어내고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고유의 정서 인효와 한을 담는다. 이미 '숙영낭자전을 읽다'를 통해 옛 여인들의 송서(책읽기)와 규방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김정숙 작가가 직접 연출까지 맡는다.

'현장검증'(7월 22~26일·소극장 알과핵)은 살인사건의 현장검증에 참여한 사람들을 통해 정의에 대해 이야기한다. 각자의 관점에서 용의자의 죄를 묻지만 누구도 자신이 말하는 만큼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다. 정의를 갈망하는 시대, 이 시대의 정의에 대해 말하고 싶었던 갈증이 입체적으로 그려진다. 서지혜가 연출을 맡았다.

'트라이앵글'(10월 9~25일·여우별 소극장)은 아들이 부모를 망치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을 소재로 평범하기만 한 가족의 모습을 파헤친다. 중견연출가 류근혜가 무대에 올린다. 문의: 070) 7664-8648

/김민준기자 mjkim@

한食대첩
하동녹차
왕의녹차
올'리브 채널 번호: 케이블TV 지역 방송국에 문의 IPTV_올레TV 76번, U+TV 78번, BTV 206번 스카이라이프 271번 (HD 104번)

돈의 탐욕, 벗어날 수 없는 욕망의 민낯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 종이 달

평범한 주부의 횡령 사건 소재
미야자와 리에 열연 호평 받아

돈은 한낱 종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종이 한 장이 무시무시한 가치를 지닌다. 종잇조각에 부여된 이 가치가 우리의 삶을 때로는 풍족하게 만들고 때로는 피폐하게 만든다. 돈이 지닌 탐욕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탐욕을 추구하는 삶의 결과는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고도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돈이 지닌 달콤함을 부인할 수 있을까. 영화 '종이 달'이 관객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영화는 가쿠다 미쓰요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일본의 버블경제가 붕괴한 90년대 중반 일본을 배경으로 어느 평범한 주부의 이야기를 그린다. 주인공 리카(미야자와 리에)는 아이는 없지만 남편과 함께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여자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한 은행에서 계약직이 된 그녀는 부유한 노년층 고객들을 상대하며 나름의 보람도 느끼고 있다. 다만 매일 비슷하게 반복되는 삶이 조금 지루할 뿐이다.

사건은 리카의 우연찮은 행동에서 비롯된다.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쇼핑하던 리카는 부족한 돈을 고객의 돈으로 대신해 계산하는 우발적인 행동을 범한다. 남의 돈이지만 빌려서 갚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저지른 그 행동은 그러나 단조롭고 평온했던 삶에 작은 균열을 낸다. 점점 깊어지는 그 균열이 리카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든다.

'종이 달'은 리카를 통해 언뜻 돈의 탐욕의 무서움을 고발하는 것처럼 보인다. 평범했던 주부가 돈으로 인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돈은 받을 때보다 줄 때 행복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사기는 어느 새 억대의 횡령 사건이 된다. 그렇게 파국으로 향하는 리카가 어리석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영화는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돈의 탐욕에 빠져 눈이 먼 것처럼 보였던 리카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순간이다. 그때 관객은 커다란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사실은 리카와 같은 욕망이 있지 않냐는 날카로운 질문이다. 그 질문에 선뜻 아니라고 답할 수 없는 현실이 무거운 여운을 남긴다.

미야자와 리에는 이 영화로 도쿄국제영화제와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 등에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무덤덤한 표정이지만 그 속에 복잡한 내면을 담은 감정 표현이 인상적이다. '퍼머넌트 노바라' '키리시마가 동아리활동 그만둔대'로 일본 영화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 요시다 다이하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청소년 관람불가. 7월 23일 개봉.

TV 하이라이트

요리 레전드들의 토크 열전

◆ KBS2 '해피투게더3' 오후 11시 10분

여름 스페셜 야간매점 2탄인 '셰프 특집'으로 꾸려진다. 7월 한 달 동안 방영될 여름 스페셜은 '국방의 원조' 야간매점의 확장판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식의 대모' 심영순, '중식의 아버지' 이연복, '스타셰프' 샘킴, '푸드멘터리의 선구자' 이욱정 PD 그리고 가수 정엽이 출연한다. 요리계의 레전드들이 모인 만큼 마치 정상회담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요리 토크 열전이 펼쳐진다.

/정리=하희철기자 bbuheng@

◆ 올리브TV '한식대첩3' 오후 9시 40분

복달임 요리를 주제로 전국 각지의 명인들이 경합을 벌인다. 지난 패자부활전에서 극적으로 소생한 전라남도팀은 비장의 무기를 선보인다.

◆ JTBC '님과함께 시즌3' 오후 9시 40분

안문숙, 김범수 부부는 신혼집에 들여놓은 이삿짐을 정리 한 후 근처 공원으로 동네산책을 간다. 공원 데이트를 마친 두 사람은 포장마차에서 서로의 과거지사를 나눈다.

◆ tvN '뇌섹시대-문제적남자' 오후 11시

세계천재인명사전 4위, IQ 190의 주인공이 스튜디오를 찾는다. 그는 누구나 멘사에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직접 개발한 두뇌 훈련법을 공개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일 (목)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79회) 05 코코몽 3 25 꼬마 철학자 휴고 45 스쿨랜드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출동! 슈퍼윙스(영어·한국어)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시계마을 티키톡!(영어·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한국인의 밥상	50 오늘부터 사랑해 (68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19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23회)	00 돌진! 슈퍼가정부와 위험한 동네 30 EBS 뉴스 50 청춘! 세계도전기	25 내 친구 아서(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내 친구 아서(한국어) (재) 50 두키 탐험대(영어)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44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시간을 달리는 TV (1회)	55 딱 너 같은 딸 (39회))	20 SBS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두키 탐험대(한국어) 20 스쿨랜드 30 세계의 교육현장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KBS 다큐 1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복면검사 (16회)	00 밤을 걷는 선비 (2회)	00 가면 (14회)	45 다문화 고부 열전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나바론요새>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산유국의 꿈 동해 고래 프로젝트	10 해피 투게더	15 경찰청 사람들 2015	15 자기야-백년손님	35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24시	35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50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기획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라인	05 역사채널e (재) 10 EBS 스페이스 공감 (1139회)	30 최고의 교사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51회) (재)					
19시	55 JTBC 뉴스룸	30 오늘 뭐 먹지?	00 유미의 방 (2회) 30 오늘 뭐 먹지? (77·78회)	00 나는 자연인이다 (6회)	00 초감각 커플	
20시	50 JTBC 뉴스룸	40 진짜 공부비법 (1회)	30 올리브쇼 2015 (24회)	00 살인마로 돌변한 동물 (4회)	40 무비스토커 (1회)	
21시	40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10회)	40 한식대첩 3 (8회)	30 한식대첩 3 (8회)	00 미국 서부의 광활한 자연, 캐니언랜드		◆ 프로야구 (18:30)
22시				00 <예수가 선택한 제자, 12사도> 마티아, 바돌로매, 도마	00 베를린	롯데 vs LG (SPOTV+) KT vs NC (MBC SPORTS+)
23시	00 썰전 (123회)	00 문제적 남자 (20회)	00 한식대첩 3 우승자레시피 (8회) 20 오늘 뭐 먹지? (78회)	00 프로그맨 2부		KIA vs 넥센 (SKY SPORTS) 두산 vs 한화 (SBS SPORTS)
24시	20 5일간의 썸머 (8회)	20 집밥 백선생 (8회) (재)	00 한식대첩 3 (8회)	00 콜드 워터 골드 (7회)	20 컴다운	SK vs 삼성 (KBS N SPORTS)

'한국형 용병' 테임즈, 타격 4관왕 달성할까

타점·홈런·타율 선두권 기부활동 등 인성도 최고

용병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응력이다. 흔히 적응력이 좋은 용병을 '한국형 용병'이라고 부른다. NC 다이노스의 용병 에릭 테임즈(29·사진)는 대표적인 한국형 용병이다. 무엇보다 그는 적응력 뿐만 아니라 실력과 인성까지 갖췄다.

◆ 용병 최초 4관왕 도전

테임즈는 3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시즌 24호 홈런과 20호 도루를 기록하면서 올 시즌 첫 '20(홈런)-20(도루)'의 주인공이 됐다. NC 창단 후 첫 20-20 달성이다. 1999년 이병규(LG)의 68경기, 97년 박재홍(당시 현대)의 71경기에 이어 역대 3번째 최소 경기(73경기) 기록도 세웠다. NC가 아직 68경기를 남기고 있어 15년 만의 '30-30' 클럽 가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호타준족의 상징인 '30-30'은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7차례 나왔으나 2000년 박재홍이 마지막이었다.

또한 용병으로는 처음으로 타격 4관왕에 도전한다. 테임즈는 현재 타점 1위(75점), 장타율1위(0.726) 홈런 2위(24개), 타율 3위(0.337)를 기록중이다. 장타율에서는 독보적인 1위다. 2위인 롯데의 강민호보다 0.052나 높다. 홈런에서는 넥센의 박병호와 경합 중이다. 박병호가 4년 연속 홈런왕을 노리고 있지만 기복이 있다는 단점이 있어 테임즈가 언제든 역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타점에서는 팀 동료이자 베테랑인 이호준의 추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테임즈는 지난달 20일 이호준을 역전한 이후 2주가 넘도록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다. 타율에서도 타석이 적을 뿐 언제든 선두로 치고 나갈 여지가 있다.

지난 시즌 처음으로 한국 프로야구에 발을 내딛은 테임즈는 그해 타율 0.344, 홈런 37개, 도루 11개, 타점 121점, 득점 94점, 장타율 0.686를 기록했다. 2년차 징크스는 커녕 2년차 상승세를 타고 순항 중이다.

◆ 인성을 갖춘 선수

테임즈는 지난 6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나눔'의 시작을 알렸다. 한국어, 영어 두 언어로 게재된 이 글에서 테임즈는 "그동안 NC에서 팬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제 내가 보답할 차례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 고성의 고아원 아이들을 돕기 위해 모금 행사를 마련하고, 아이들을 경기장에 초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테임즈는 이번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또 어린이들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고아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 기금을 마련해 병원 등에 기부하는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스스로 계획을 한 뒤 행사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들과의 소통을 위해 한국어 공부도 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마음이 팬들에게도 전달이 된 것일까. 테임즈는 얼마 전 2015 올스타전 나눔 올스타의 1루수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아 올스타전 출전이 확정됐다. 1루수의 쟁쟁한 후보들인 박병호(넥센), 김태균(한화)등을 모두 누르고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선수단은 물론 팬 투표에서도 국내 스타들을 누르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이다.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윌리엄스·샤라포바, 4강 맞대결

윔블던테니스

세리나 윌리엄스(1위·미국)와 마리야 샤라포바(4위·러시아)가 윔블던 테니스대회(총상금 2675만 파운드·한화 약 460억원) 여자단식 준결승에서 맞붙는다.

윌리엄스는 8일(한국시간) 영국 윔블던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대회 8일째 여자단식 8강전에서 빅토리야 아자란카(24위·벨라루스)에게 2-1(3-6 6-2 6-3)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앞서 열린 경기에서 코코 밴더웨이(47위·미국)를 접전 끝에 2-1(6-3 6<3>-7 6-2)로 꺾은 샤라포바와 4강에서 마주치게 됐다.

둘의 상대 전적은 윌리엄스가 17승2패로 압도한다. 2004년 투어 챔피언십에서 샤라포바가 마지막 승리를 거둔 이후 윌리엄스가 16연승 중이다. 최근 대결은 올해 호주오픈 결승으로 역시 윌리엄스가 2-0으로 이겼다. 윔블던에서는 2004년 결승에서 샤라포바가 승리했고 2010년 16강에서는 윌리엄스가 샤라포바를 탈락시켰다.

/하희철기자

"기보배 개인전 세계신기록 맞다"

광주U대회

양궁협, 일부 보도 해명

양궁협회가 기보배(사진)의 세계신기록을 공인했다.

대한양궁협회는 8일 기보배(광주시청)가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리커브 양궁 여자 개인전 예선에서 세운 기록이 세계신기록이 맞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보배의 예선전 70m라운드 686점 세계신기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부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양궁은 유니버시아드 핵심종목은 아니지만 성인 선수들이 출전하는 공식 월드랭킹대회로 본 대회의 모든 기록은 세계양궁연맹(WA)에 공인되며 공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2명 이상의 국제심판이 배정되도록 돼있는 월드랭킹 대회 규정에 따라 이번 대회에도 4명의 국제심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보배의 개인전 기록뿐 아니라 기보배, 최미선(광주여대), 강채영(경희대)이 세운 70m라운드 기록 2038점 역시 세계신기록이다.

협회는 "기록 수립 직후 WA는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뉴스로 세계신기록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축하했다. WA소속 기술임원의 서명을 통해 세계신기록으로 공인됐고 WA 세계신기록 페이지에도 공식 등재됐다"고 말했다.

/하희철기자

한계를 넘어 8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 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육상 여자 장대높이뛰기에 출전한 최예은이 4m 5를 넘고 있다. (D4 다중노출 촬영) /뉴시스

오늘의 광주 하계U대회 9일

▲수영= 남자 자유형 50m·계영 4×200m, 여자 평영 50m·접영 200m·자유형 50m·800m 예선(8시30분)
남자 자유형 50m, 여자 평영 50m·접영 200m·자유형 50m 준결승(19시)
남자 자유형 1,500m·접영 100m·평영 50m·배영 200m·계영 4×200m, 여자 배영 50m·자유형 200m 결승(19시·이상 남부대 국제수영장)
▲다이빙= 혼성 및 남녀 팀이벤트, 남자 플랫폼, 여자 3m 스프링보드 싱크로나이즈드 결승(11시·이상 남부대 국제수영장)
▲육상= 남자 경보 20㎞(7시30분) 남자 10종경기·200m 1라운드·장대높이뛰기 예선, 여자 200m 1라운드·100m 허들 1라운드(9시)
남자 3,000m 장애물 1라운드·해머던지기 결승·400m허들 준결승, 여자 멀리뛰기 결승(12시)
남자 200m 2라운드, 여자 100m 준결승(16시)
남자 100m 준결승·세단뛰기 결승·400m 준결승, 여자 400m 준결승·장대높이뛰기 결승·800m준결승(17시)
남녀 100m 결승(18시35분) 남자 10,000m 결승, 여자 원반던지기 결승·5,000m 1라운드(19시30분)
▲농구= 여자 9~16위전 한국-중국(15시·영광스포티움 체육관)
남자 한국-에스토니아(20시30분·광주대체육관)
▲펜싱= 플뢰레 남자 단체전 예선 및 결승(9시)
사브르 여자 단체전 예선 및 결승(12시20분·이상 김대중컨벤션센터)
▲축구= 남자 준준결승 한국-우루과이(16시30분·정읍종합경기장)
▲골프= 남녀 개인 및 단체전 2라운드(8시30분·나주골드레이크컨트리클럽)
▲핸드볼= 여자 한국-몬테네그로(14시·구례실내체육관)
남자 한국-멕시코(18시·고창군립체육관)
▲사격= 남자 스키트·25m스탠다드권총, 여자 50m소총3자세 본선(8시30분)
남자 스키트, 여자 50m 소총3자세 결선(11시30분·이상 나주전남종합사격장)
▲탁구= 남녀단식 예선(10시) 남녀단체전 준결승(17시·이상 장성홍길동체육관)
▲태권도= 남자 54㎏·68㎏급, 여자 46㎏·57㎏급 예선 및 결승(9시·조선대체육관)
▲테니스= 남녀단·복식 준준결승, 혼합복식 3회전(9시·진월국제코트)
▲배구= 남자 9~16위전 한국-브라질(13시·나주동신대체육관)

National Pension, In Favor of Samsung?

<국민연금, 삼성 편 들어줄까>

Even if one of the certain stock holders among Samsung C&T Corporation unites with KCC, they can only own 20% of the share. Supposing that 70% of the general members were to participate, they still need to secure 47% of the allied entry.

But the minor individual stock holders of Samsung C&T Corporation is strongly opposing Samsung. General enterprise investors who own 10.9% of the whole share cannot simply throw in favoring vote.

The only hope for Samsung is the National Pension (11.21%). National Pension won't be able to favor in merging as well.

삼성물산 주주 가운데 확실한 삼성 편은 KCC를 합쳐도 20%가 채 안 된다. 주총 참석비율을 70%로 가정해도 47% 이상의 우군을 확보해야 삼성은 합병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를 중심으로 한 개인투자자들은 반 삼성 분위기가 짙다. 총 10.9%를 쥔 국내 일반 기관투자자들도 무작정 찬성표를 던지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찬성을 합리화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펀드 투자자들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에게 남은 그나마 희망은 국민연금(지분율 11.21%)이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이번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7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 강남사옥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부결의결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의견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2				
			4			7		5
3					6	1		
	5		6	8			9	
6			9					4
		9			4	3	5	
	4	8			9			
			3		8			
	1			7				

		6	3	9	2	5		
		2	5		1	3		
	1						2	
5			1		6			7
4			8		3			6
	3						1	
		4	2		7	8		
		8	6	3	5	4		

스도쿠 정답

4	8	1	5	2	7	6	3	9
2	9	6	4	3	1	7	8	5
3	7	5	8	9	6	1	4	2
1	5	4	6	8	3	2	9	7
6	3	7	9	5	2	8	1	4
8	2	9	7	1	4	3	5	6
7	4	8	1	6	9	5	2	3
5	6	2	3	4	8	9	7	1
9	1	3	2	7	5	4	6	8

7	8	6	3	9	2	5	4	1
9	4	2	5	7	1	3	6	8
3	1	5	4	6	8	7	2	9
5	2	3	1	4	6	9	8	7
8	6	1	7	5	9	2	3	4
4	7	9	8	2	3	1	5	6
2	3	7	9	8	4	6	1	5
6	5	4	2	1	7	8	9	3
1	9	8	6	3	5	4	7	2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중국으로 이민가서 장사해도 될까요?
인테리어·사진 배워두면 중국서 도움

운남성 남자 58년 6월 3일 음력 12시 50분
여자 72년 2월 11일

Q 남자(한국인)58년 6월 3일 오후12시50분(음력) 여자(중국인)72년 2월11일 안녕하세요. 김상회선생님 선생님 글 읽으며 위안과 함께 생활에 많은 참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식도 없고 이렇다 할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남은 인생을 중국에 가서 조그만 가게를 하며 여행을 다니며 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가 장사를 하면 가능할까요? 제 사주에 타국생활도 가능할까요.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건강 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A 사주에 도화와 식신이 강하면 예체능 쪽에 재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재인이라고 부르며 천대했지만 요즘은 너도나도 연예계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58년생으로 나이가 있으니 예체능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으로 보며 건축쪽 인테리어를 배우십시오. 목표가 없는 것은 연월(年月)에 나타나 있는 식신상관이 형살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식신상관은 밥그릇인데 자신의 밥그릇이 사주기호로 풀어볼 때 형살에 임하면 하고자 하는 일에 비빌 언덕이 없으며 없다 보니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합리적인 생각은 많지만 충이되면 실행에 옮기기가 더디고 그냥 앉아 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좋으니 이끌어줄 인맥을 찾아보고 움직여보세요. 벌이가 적더라도 따라다니고 움직여 돈을 벌면 그다음에는 사진을 배우십시오. 중국에 가게 될 때 도움이 됩니다. 삶의 목표 설정을 통해 새로운 원동력을 찾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중국가려는 시기를 애써 찾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생일지에 귀인의 상을 놓아 어려운 때 뜻하지 않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데 아쉽게도 귀문살(鬼門殺:비정상의 정신 상태)의 작용으로 본의 아닌 엉뚱한 결정을 할 경우가 있기에 상담을 받고도 실행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생활에서 처덕이 있어 부인의 도움과 내조를 받게 되지만 부인은 귀하와 결혼생활의 어려움이 있어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 운이 있어야 가게를 해도 잘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부인의 힘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7월 9일 (음 5월 24일)

48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60년생** 주위사람들 모두가 귀하의 편을 들어줍니다. **72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84년생**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됩니다.

49년생 의외의 일들을 겪게 될것입니다. **61년생** 금전, 직장, 이성운 모두 불리합니다. **73년생** 말 실수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85년생** 칭찬이나 혹은 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년생 가끔씩의 휴식은 약이됩니다. **62년생** 유비무환이란 말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74년생** 성실한 자세로 나아가면 더 큰 이득이 보입니다. **86년생** 지출을 좀 줄이세요.

51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욱 심합니다. **63년생** 말 조심하고 건강에 신경 쓰세요. **75년생** 늘 올바른 자세로 매사에 임하세요. **87년생** 길을 가다 필요한 정보를 얻을 것입니다.

52년생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64년생** 약간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76년생** 오늘 귀하의 행운의 숫자는 9번입니다. **88년생** 능력을 평가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53년생 자신의 고집을 버려야 하는 일이 길합니다. **65년생** 괴롭지만 고통을 내색하지 마세요. **77년생** 이성과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89년생** 신중히 나아가야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54년생 베푸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세요. **66년생** 유비무환이란 말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78년생** 별들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90년생** 새 친구들을 사귀도록 하세요.

55년생 생각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67년생** 재물을 다투는 일이 따를 수 있습니다. **79년생** 주변을 잘 살피고 귀인을 찾으세요. **91년생**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56년생 재정문제는 당분간 어려워집니다. **68년생** 꿈같은 시기를 만났습니다. **80년생** 유흥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될것입니다. **92년생** 좋지 않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7년생 의욕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습니다. **69년생**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81년생**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93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58년생 외출을 삼가세요. **70년생** 우연한 기회에 복운을 만나 평온해 지겠습니다. **82년생** 몸관리에 유념하세요. **94년생** 윗사람한테 안좋은 인 상을 주게 됩니다.

59년생 자존심에 얽매여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71년생** 오랜 고난 끝에 보람을 찾게 됩니다. **83년생** 좋은 결과를 거두기에는 어렵겠습니다. **95년생**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줄 여건이 못됩니다.

LH 단지내 상가 투자가이드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단지내 상가가 인기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공급된 LH 단지내 상가 101개 점포는 한 차례의 유찰도 없이 모두 완판됐다. 평균 낙찰가율은 212%에 달했다.

LH 단지내 상가는 아파트 입주민을 배후수요로 가져 안정적이다. 편의점, 세탁소, 슈퍼 등과 같은 생활밀착형 업종이 입점하기 때문에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배후 세대당 공급되는 점포 수가 적어서 희소성이 크고 수익률도 높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투자금 부담도 적다. LH 단지내 상가는 대략 3억~5억원 선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초기 투자에 보통 5억~10억원이 필요한 일반 아파트 상가나 근린상가 등에 비해 저렴하다.

하지만 최근 인기 지역에서는 낙찰가율이 급등하며 저가 매력이 사라지고 있다. 온라인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되는 LH 단지내 상가는 입찰공고 상의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를 써 낸 입찰자가 실제 낙찰을 받는다.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쓸수록 낙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기 지역의 점포에서는 낙찰가율이 치솟는다. 올 상반기에 낙찰된 화성 동탄2지구의 한 점포는 예정가격이 2억384만원이었으나 최종 7억4100만원에 낙찰되며 낙찰가율이 364%를 기록하기도 했다.

문제는 너무 높은 가격에 무리해서 낙찰을 받으면 임대수익률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다. 목표한 수익률을 내기 위해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높이게 되면 결국 공실로 이어진다.

입찰공고 상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150% 이내에서 낙찰 받는 것이 적당하다. 만약 투자가치가 높아서 더 높은 입찰가격을 써내야 한다면 반드시 주변 상가 임대료를 확인해보고 적어도 연간 5~7%의 임대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대단지일수록 배후세대가 많아서 유리하다. 가까운 곳에 경쟁 상대가 될 만한 대형 상권이나 백화점, 마트가 있으면 좋지 않다. 점포의 위치, 전용률을 체크하는 것은 기본이다. 신도시의 경우 도시가 안정되고 상권이 자리잡을 때까지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올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200여 개의 LH 단지내 상가 점포가 입찰에 나선다. 수도권에는 하남 미사지구, 화성 동탄2지구, 의정부 민락2지구, 구리 갈매지구, 고양 삼송지구, 부천 옥길지구 등에서 공급 계획이 있다. 혁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공급 계획이 잡혀있는 지방의 경우에는 수도권 점포보다 예정가격이 더 저렴하다.

입찰 참여는 인터넷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제한이 없고 다수의 공동 입찰도 가능하다. 온라인 청약을 위해 유효 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미리 마련하고 신청 후에는 정해진 시간에 입찰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5% 이상 준비해야 한다. 낙찰가격의 최대 20% 수준인 계약금과 계약 후 3~6개월 내에 납입해야 하는 중도금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안전하다.

나쁜 언론의 나쁜 기자

기자 수첩
김 성 현
<생활유통부 기자>

기자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 취재원을 자주 만난다.

취재 대상은 업계 관계자가 될 수도, 또는 기업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노동자나 고객이 될 수도 있다.

오늘도 여전히 힘없는 이들은 부당함을 외치고 있고 그 현장에는 기자들이 있다.

지난해 신세계 이마트는 노조탄압 등 일련의 사건이 공개되며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올해 1월 관계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호소는 계속되고 있다. 변화가 없는 것이다.

누군가 부당함을 외치는 목소리는 대기업의 행사 홍보에 묻혀 버린다. 포털 뉴스에는 매일같이 셀 수도 없는 기업 홍보 뉴스가 쏟아진다.

기업의 좋은 행실을 알리는 것만큼 비판도 중요하다.

메트로신문이 4월 1일자로 게재한 '이마트 참돔 어민돕기? 납품가 후려친 두배 폭리장사' 기사가 나간 후 추가 거래를 하지 않았던 이마트가 지난달 중순 '참돔' 재구매에 나선 것은 기자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 또한 기사로 작성됐다. 한 기업의 같은 사건을 두고 비판과 칭찬을 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

존경하는 한 선배 기자는 "기자가 쓴 기사로 사회가 조금씩 변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보람"이라고 일러줬다. 기자가 기업 비판 기사를 작성하는 목적이다.

최근 광고주협회는 메트로신문사를 '나쁜언론 1위'로 단정지었다. 기사에 기업 회장의 얼굴을 싣고 기업에 대한 비난 기사를 썼다는 이유에서다. 광고주협회는 기업에 대한 비판 기사를 곧 바로 광고영업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뻔뻔함도 보였다.

재벌 기업의 모임인 광고주협회가 '사이비'라는 단어를 사용해 언론을 탄압하고 나쁜 언론과 착한 언론을 정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선악을 가르는 천민자본주의의 끝 선에 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힘없는 이들의 말을 듣고 기사를 쓰는 것이 광고주협회가 말하는 사이비 언론이자 나쁜 언론이라면 사이비 기자가 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인사

■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공항정책과장 나웅진
■ 무역보험공사
△승진 <1급> ▷프로젝트금융총괄부장 김양규 ▷국외보상채권부장 이은근 ▷해양금융부장 안병철 <부서장급> ▷경영평가부장 장만익 ▷충북지사장 김준호 ▷부산지사장 노태근 ▷광주전남지사장 방종열 ▷제주지사장 김필준 <2급> ▷신용정보사업팀장 정지현 ▷채권관리기획팀장 염현철 ▷법정관리반장 최용진 ▷법제팀장 곽광 ▷영업기획팀장 김용환 ▷컨테이너팀장 박무정 <팀장급> ▷성과평가팀장 홍광숙 ▷정보화서비스팀장 홍정화 ▷심사실 책임심사역 허재진 ▷국제협력팀장 김경철 △전보 <부서장급> ▷정보화사업부장 최광식 ▷심사실장 김기만 ▷발전금융부장 윤종배 ▷감리실장 이경철 ▷현장경영추진실장 강신호 ▷중앙지사장 안혜성 ▷강남지사장 김석희 ▷경기지사장 임필상 ▷울산지사장 김종성 <팀장급> ▷인사팀장 박찬근 ▷자산관리팀장 김연호 ▷자금운용팀장 문정상 ▷홍보팀장 김정호 ▷미래전략반장 강영민 ▷단기기획팀장 이두원 ▷국별산업조사팀장 이동진 ▷심사팀장 이주영 ▷프로젝트금융총괄부 책임심사역 유병언 ▷석유화학팀장 김윤석 ▷해외사업팀장 최상봉 ▷유럽아프리카보상팀장 신민철 ▷해외채권관리전담반장 김춘수 ▷감리팀장 이태희 ▷감사실 책임검사역 나원주 ▷감사실 책임검사역 이규형 ▷마케팅기획팀장 조승욱 ▷중앙지사 부지사장 오주환 ▷구로디지털지사 부지사장 장형균 ▷경기북부지사 부지사장 고정환 ▷부산지사 부지사장 김영국 ▷경남지사 부지사장 윤태진
■ 국민권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창조기획재정담당관 임진홍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장 김안태
■ 서울신문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주병철

상가 권리금, 임대차계약 해지시 건물주에게 돌려받을수 있을까?

생활법률

권리금이란 점포의 장소적 이점이나 영업허가권의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을 뜻한다.

권리금에 대한 마땅한 법규가 없다보니 건물 소유주(임대인)와 사업자(세입자) 간의 갈등이 종종 불거져왔다.

관행적인 거래 상황에서 점포를 내놓거나 임대차계약 해지시 건물 소유주로부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해당 법은 없어도 기존 판례에선 반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권리금 반환을 요구해왔다.

예컨대 건물 소유주의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건물 소유주가 본인의 건물에서 사업자와 같은 업종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할 경우 법원은 건물 소유주가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눈다. 사업자로부터 받은 권리금 중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기간에 상응하는

지난해 1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 인근 중식당 신신원 앞에서 열린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신금수 신신원 사장이 상가 세입자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분을 공제한 부분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건물 소유주에게 권리금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무관하게 후에 올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 보증금과는 다르게 건물 소유주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사업자는 당초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전대차함으로써 새로 들어올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홍원기자 hong@

소비자단체 "가짜 백수오 전부 환불해야"

소비자 119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가 "소비자가 이미 섭취한 제품을 포함해 판매된 백수오 제품 전부를 환불 등 보상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섭취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만 환불해준다는 홈쇼핑 업체(개봉 여부 상관없이 전액 환불키로 한NS홈쇼핑 제외)의 보상방안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8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와 사단법인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가족학과 교수는 "일부 백수오 제품 섭취자가 부작용을 경험하고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홈쇼핑업체 등이 내세우는 '잔류 제품 환불 원칙'은 백수오 제품을 사 먹은 소비자의 분노에 부채질을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최근 검찰의 무혐의 처분 발표 중 일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겠다"며 "검찰이 '장기간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를 내츄럴엔도텍이 납품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장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홈쇼핑업체들이 백수오 제품 판매 방송을 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홈쇼핑업체의 광고 위반 관련 자료를 6월 초에 넘겼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수오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란 생리활성등급 2등급을 인정받았으나 홈쇼핑에선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 효과가 있고 갱년기 대표증상인 안면홍조나 발한(땀) 증상 개선에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기능성(효과)을 과장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문제된 백수오 제품을 샀거나 섭취한 사람이 피해 배상 받기가 극히 힘들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민 스카이특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식약처나 한국소비자원의 검사를 통해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확인불가이거나 이미 섭취했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도 배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대명건설

잠실의 프리미엄 맨앞에서 누려라

그 위상이 드디어 드러났다!

롯데월드타워, 서울아산병원, 삼성SDS본사이전, 국민연금공단, 한국루터회관 등
5만여 풍부한 임대수요와 잠실관광특구의 빛나는 비전프리미엄까지 품은
잠실의 중심으로 대명벨리온이 찾아갑니다

123층 롯데월드타워 · 상주인구 4만명

롯데월드

롯데백화점

삼성 SDS본사

대명벨리온 오피스텔

몽촌토성역 8호선

신방이역 9호선

2 잠실역

실투자금 1,740만원

중도금전액 60% 무이자

저금리시대 약 8% 수익예상

유동인구 30만 임대수요풍부

특급교통 몽촌토성역, 잠실역, 신방이역(9호선 연장 예정) 트리플 역세권

특급수요 서울아산병원, 롯데월드몰·타워(예정), 문정법조타운 등 풍부한 배후수요, 잠실관광특구내 위치

주거만족 롯데타운,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등 선호도 높은 주거환경

혁신공간 스마트한 빌트인 주거공간으로 입주자 만족 극대화

No.1 리조트그룹 대명그룹이 만든 랜드마크 오피스텔

송파권 기업 종사자수 대비 소형 주거상품 절대 부족

송파권역 기업체 종사자 대비 공급물량 비율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강서	관악	구로	도봉	마포	서대문	양천	은평
4.4%	4.6%	5.7%	9.7%	10%	17.3%	9.7%	8.4%	11.1%	9.6%	9.8%	8.9%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개발 및 계획에 대한 사항은 각 개발주체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층 · 호수 청약접수 안내

■ 신청금 : 100만원
■ 예금주 : (주)싸이트리더스
■ 은행 : KB국민은행
■ 입금계좌 : 884237-04-003874
※ 미 계약시 신청금 전액 환불됩니다.

시행

시공 대명건설 Daemyung

분양문의

자금관리

분양관리신탁 태원피앤에이